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www.snuaa.org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40호 2014년 4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952 Galwos Rd., #206
Vienna, VA 22182, USA
Tel. 703-462-9093 Fax. 703-462-9093
e-mail : snuaausa12@gmail.c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 지난 2014년 9월 LAH J.J. Grand Hotel에서 열린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 에서 주제발표를 한 강연진 중 일부 분들과 미주 동창회 회장 및 임원들이 자비를 함께 한 장입니다.

제3회 Brain Network Symposium “준비 할발” 한국의 역사와 전통·생명과학 2개 분야 8개 부문

제3회 SNUA-USA Brain Network Symposium이 오는 6월 27일(금) 제23차 평의원회의 기간 중 첫날 행사로 치러진다.
이제전(분리대 55-Claremont McKenna College) 명예 교수*) SNUA-USA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이 준비하고 있는 이번 symposium은 제12차 때보다는 좀 더 다양한 분야를 채택하였다.
오전에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 분야에서 4명의 물론 연사가, 오후에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4명의 물론 연사를 초빙하여 전국에서 모이는 평의원은 물론,

학식된 IC 지역 전문가들, 그리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 동료 여러 분들에게도 공개하는 symposium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같은 강연회의 규모도 커질것이다. 따라서 행사에 필요한 기념포장을 위하여 1월말(미국 8월) 중순이 도모구원장으로도 적극 봉사하고 있다.
이제전 부회장은 다름 6-7월 한국 귀국에 관계가 있어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하용국 교수(사위대 68-University of Washington)가 이젠 부회장 대

리로, 김정식 사업국장(뉴대 85-Georgetown University 교수)이 symposium에 필요한 팔렛트 등 준비물들을 만들도록 하여 기대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많은 평의원들과 일반 동문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일반 동문은 참여한다는 참가費비로 \$100을 내면 평의원회 기간내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단, 토요일 낮 평의원 회의는 평의원회와 ACRPOLIS Conference에 참여하는 각 지역 동창회 ACRPOLIS 등은 대표들에 한한다.

서울대 출생동향

신임 회장에 서정화 전 장관 임광수 회장이 이 제25대 취임



서울대 총동창회는 지난 3월 21일 서울 중구 롯데 호텔 크리스탈 홀룸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 총회에서는 총동창회장의 임명식이 있었다.

서정화 전 부회장(81·사진)을 제25대 총동창회장으로 선출했다.
따라서 서정화 신임 총동창회장은 임광수 회장의 뒤를 이을 것으로 총동창회를 맡게 됐다.
서정화 신임 총동창회장은 지난 총영고와 모교 발전을 줄일하고 처음 내부부 공무 원으로 출생했다.
그 뒤 중앙정보부(현재 국가정보원) 차장을 거쳐 전두환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서 각각 내부부 장관을 지낸 바 있어 장관을 두 번이나 역임했다.
12-16대 국회 5선의 국회의원, 충남 도지사 등을 지냈다.
홍기우·김승연 회장이 서회장의 임명식에서 총동창회장의 사의를 ***

<Left Session : 한국의 역사와 전통>

- ▶ 일본 식민지 정책의 재검토 (Yumi Moon, Stanford University)
- ▶ 이군정 : 설립, 특징과 한국의 공민(Bonghan Cho, Georgetown University, Retired, 미국 53)
- ▶ 한국 문화의 특성성(Sangyong Park,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 남북 관계의 역사와 전망 (Young C. Kim,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Right Session : 생명과학>

- ▶ How to live long and healthy? (Byoung-Joon Song, 약 68, NIH)
- ▶ Prostate Cancer Today: Advances and Challenges(Jong Sik Rhim (이대 51, USFIS))
- ▶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신생물 기술(Byung Dong Kim, 서울대 명예교수, 농대 62)
- ▶ T8D Johns Hopkins U. <Lecturor 서울대 의사회에 할당된 speaker ***

NON-PROFIT
US POSTAGE PAID
DULLES, VA
PERMIT NO. 445

영국의 대학교육 진문서 THE 세계의 대학 랭킹

“서울대 26위로 사상 최고”

하버드·MIT·스탠포드·케임브리지·옥스포드·U버클리·프린스턴·에일 등 순위

모교 서울대가 세계 26위로 사상 가장 높은 랭킹을 받았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유명대학들이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다.

영국의 권위는 대학교육 전문잡지 Times Higher Education (THE)이 지난 3월 5일 발표한 연례 '명성이 높은 세계의 대학 랭킹'에 따르면 모교 서울대가

26위를 차지한 것이다.
THE는 '명성높은 세계의 대학 랭킹 Top 10'을 발표했는데 하버드·MIT·스탠포드·케임브리지·옥스포드·UC버클리 등의 순위였다. <표 참조>
한편 KAIST는 51 - 60위 사이에, 그리고 연세대학이 81 - 90위 사이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UC버클리·텍사스 A&M 등 4개 대학이 포함됐다.
THE의 이번 평가는 전세계 1만1천5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기

| 순위 | 대학명 |
|----|-------|
| 1 | 하버드 |
| 2 | MIT |
| 3 | 스탠포드 |
| 4 | 케임브리지 |
| 5 | 옥스포드 |
| 6 | UC버클리 |
| 7 | 프린스턴 |
| 8 | 에일 |
| 9 | 캠브릭 |
| 10 | ICLA |
| 26 | 서울대 |

나 학자들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명성'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명위를 100까지 확대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UC샌디에고가 40위였으며, UC 데이비스는 51-60위 사이, UC 산타바바라와 USC는 61-70위 사이에 각각 버렸다.
한편, THE는 지난해 10월 기준이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세계 대학명성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캠퍼스 1년 연속 1위 에 올랐고, 캠퍼스는 옥스포드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4 위부터는 스탠포드·MIT·프린스턴·케임브리지(영국)·UC버클리·Univ. of Chicago·Imperial College London·Yale·UCLA의 순위였다. *** <미주 중앙일보 인용>

“북미주에서 SNU가 옹비하기 위한 SNUAA Initiatives”

- 각종 동창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자
- 모두들 회비를 납부하자
- 휴식기간의 친목을 도모하자
- 모교 발전에 기여하자
- SNU Network을 구축하자
- 한인사회와 미 주류사회에 기여하자
- 북미주 명문대학 동창회들과 교류하자
- SNUAA가 Group 으로서의 힘을 발휘하자

금액 등 객관적 차르보다는 교수

주필 칼럼

시집에 나타난 미주 한인인의 모습



백 순(백대 58)
미 연방노동 심판계획자
취임선 관리포럼 위원
미주 동창회보 주필

미주 한인인 12만이 광활한 영토를 시집 '내가 고향이다' (I am the solid homeland for the later generations...) Since I carry the older times/ I am the homeland', 'I am Homeland' by Gun U)' 라고 특별하는 모습으로, 아주 절절하게 나타내고 있다.

첫째 '낯선 사람', 즉 '이방인'의 모습이다. 현실의 미국사회와 문화에 어울려 살아가고 싶고 있었던 이방인 모르게 이 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냐 묻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는 "외국어를 모르는 낯선 사람(a stranger in foreign countries, 'Desert Poem-Meter' by Hoggil Kim)'의 모습이다. "여기에 살아 있는 두 아들과 두 딸을 만나느라 오아시사마다 한 아아워 리빙 투는 she has dropped her living two sons and two daughters/ one by one in each oasis she has reached, 'My Mother Becomes A Camel' by Dooyun Chung)" 모습이든, "길바닥을 뒹굴 뒹굴 하되만/ 매일 백만 번 일어나요/ 아이들의 울음을 쫓아 이어야 해(trying to cross over the cliffs but/ falling a hundred times a day/ absorbing kids' complaints, 'From Kitchens' by Hyoung O Kim)" 모습이든,

둘째 '배려하는 사람' 즉 '순종적' '적용자'의 모습이다. 일차의 세월 속에서 미국사회의 생활에 적응이 잘 돼 보니 어느정도 언어와 규범과 풍습을 터득하게 되고 그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는 미주 한인인의 모습인 것이다.

"미려한 미주 한인여의 정재성을 '물결의 노닐을 할 줄 나는 중류미국인이 되었네'(After years of labor, I became a middle class American, 'Settlement' by Hyoung Kie Lee)" 하는 모습으로, "영양은 나의 언어이자/ 그리고 미움과 규율, 풍습과 시집을 줄리 배워세('English is my language/ And learns American laws and regulations, manners and business ethics', 'Rich and Poor' by June C. Baek)" 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나는 후세대를 확고하고 교양하고.../ 내가 옛

세대를 간직하고 있으므로 나는 고향이다(Therefore, I am the solid homeland for the later generations...) Since I carry the older times/ I am the homeland', 'I am Homeland' by Gun U)' 라고 특별하는 모습으로, 아주 절절하게 나타내고 있다.

셋째 '배려하는 사람' 즉 '순종적' '적용자'의 모습이다. 현실의 미국사회와 문화에 어울려 살아가고 싶고 있었던 이방인 모르게 이 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냐 묻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첫째 시인은 자기 아파르트먼트를 소유할 수 없었지만, .../ 백만 장의 땅, 마당이 될 수 없네" ("A life-long poet could not buy his own apartment.../ but he could be a millionaire, an emperor, a magician," Poet by Se Hoong Ba)같이 시인이 되어서, "시집할 일일기라는 시의 안 예의 표현과 장치가 있는 미주 노동자" ("a migrant worker snoring in the bouncing truck on a country road", 'Yde to Sleep' by Yeorn Hong Choi) 같이 노동자적인 단상을 차고 있는 이방인과도 되고, "이리나그리니 현악기들을 치고, '이리나그리니'의 아름다움과 맛을 대신 세서" ("Mother is taking the college entrance test/ On behalf of her son and daughter", 'Mother's Prayer' by Ven, Kim Kyoung-hee)가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는 모습이다.

"모든 길은 사람의 뜻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함은 의로우며" (All the ways of man are vain, but the way of the Lord is perfect and gives life.) "The Way of the Lord" by Rev. Kim Kyoung-hee)의 이인생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후손과 후손의 삶을 주관하는 절대자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미주 한인인이 태운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나의 신생 후손 나의 영광을 기대하지.../ 그리고 나의 영혼만 안치지" ("But you are my goldmine in my heart.../ You are my permanent shelter, 'Secret' by Sung Ho Lee)" 같은 모습이고, "그리고, 고개를 다스리는 우주의 실상을 영의 일체성이 우주의 실상을 영의 일체성이 기다리는 기도실에서/ 눈물의 강 흐르게 하소서" ("In the prayer room waiting for the sunlight breaking the night darkness/ Let the river of tears flow", 'Let the River of Tears Flow' by Soom Paik)와 같이 신의 은총과 자비를 간구하는 모습이다.

제1세대 미주 한인들인 '낯선 사람' '배려하는 사람', '순종적' '적용자', '배려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등 4가지 모습의 삶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하지만 예언인 이 4가지의 모습은 4세대 한인이 자기의 삶 안에 드러내면서 살아 가는 것이 미주 한인인 삶의 모토인 것이다.***



미주 동창회
3월 임원회의

—미주 동창회가 지난 3월 29일 화요일에 비건다 사무실에서 3월 정기 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의 안건 중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6월 27-29일 일별 제23차 원외 회의에 대한 준비 사항이었다. 원외부터 시계장비 및 오디오 장비, 김희정 시집출판회, 이주진 입학금 등 정회원 사후유증이 3월 임원회의에 채택해 안건으로 중의 중이다.

미주 서울대 동창회 제23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정
The West in Hotel, Iysons Corner, VA 22043 (Red Color는 비평의원, 가족, 워싱턴 방문도 참가)

| Time | Thursday June 26 | Friday June 27 | Saturday June 28 | Sunday June 29 |
|-------------|--------------------------|---|--|---------------------------------|
| 07:00-08:00 | | Breakfast | Breakfast, Registration | Breakfast |
| 08:30-09:00 | | | | |
| 09:00-10:00 | Arrival and Registration | Brain Network Symposium (Korea Study) | 평의원 회의 | Departure & Free Time |
| 10:00-11:00 | | | | |
| 11:00-12:00 | | | | Move by Bus to GC |
| 12:00-01:00 | Lunch | Lunch | Lunch and Photo Session | Lunch and Photo |
| 01:30-02:00 | | | | |
| 02:00-03:00 | Arrival and Registration | Brain Network Symposium PM Session (Life Science) | 평의원 회의 | Golf Game(PB Dve GC) |
| 03:00-04:00 | | | | 워싱턴 방문도 환영 |
| 04:00-05:00 | | | Free Time | 10:30 접수 |
| 05:00-06:00 | | | Registration & Social Mix | |
| 06:00-07:00 | | 평의원 회의 잔여예 | Main Banquet (모교총장 축사 및명망 인물도 환영) | |
| 07:00-08:00 | | | 19일 \$90 | Dinner and Winners Presentation |
| 08:00-09:00 | Diner | The Westin Hotel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 \$100) The Westin Hotel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 |
| 09:00-10:00 | | | | Move to Hotel |
| 10:00-11:00 | | Chapter Presidents Meeting | | |

연락처 : 한정민 총무장(703-618-4180, snuausa21@msn1.com)
정호석 사무총장(301-661-9227, paulchungo@msn1.com)
호텔 예약 : 본보 2번 계시관 참조

영시 해설



백효식(포리대 영문 52)CA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교수

First Spring Morning
By Robert Bridges

Look! Look! The spring is come
O feel the gentle air,
That wanders thro' the boughs
to burst the thick buds every-where!
The birds are glad to see
The high unclouded warbler
is fled away, they sing,
The gay time is begun.

Adon the meadows greetlet us go
dance and play,
And look for violets in the lane,
And ramble far away
To gather primroses,
That in the woodland grow,
And hunt for oxlips, or if yet
The blades of bluebells show
There the old woodman gruff
Hath half the coppice cut,
And waves the hurdles all day
longbesides his willow hut,
We'll steal an hour, and there
Starting him, all with glee
Sing our song of winter
Fleeth! summer soon to be.

(이백) 이백! 봄이 왔다구요/ 오, 부드러운 바람을 느껴봐요/ 낮가지 사이를 뚫어내어 이곳 저곳/ 박박한 꽃 봉오리를 터지게 하든 바람같이/ 새들은 날고 춤추며/ 구름 없이 높이 떠 있는 태양을/ 그들은 노래하네, 계절이 지나가고/ 경치를 때가 시작되었다고/ 파란 목장 아래로 노래가/ 춤을 추며 옵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제비꽃을 찾고/ 또 들기 속에서/ 영구를 창으로 띠며 미미 한 속삭여가라! 그리고 영두를 풀을 찾고요/ 초롱초롱

일이 나왔는지 좀 보자구요/ 저기 푸른빛만 남은 나무꾼/ 반쯤 울타리를 잡고 가지고 온 종일 울타리를 울타리고/ 비드나 무작위같이 걸 걷어/ 우리 살상 수에 몰래 대까지/ 기쁨으로 그들 놀라게 하거요/ 겨울은 갔다/ 노래하며/ 그리고 여름은 끝난다(이하...)

▶이전 Robert Bridges는 영국 의 Kent, Walmers에서 1844년 10월 23일 태어나 1930년 2월 21일 에 86세에 사망했다. 그는 영국의 유명한 Eton College와 Oxford University에서 공부했다. 원래 시계 장교로 40세까지 일을 하다가 시를 쓰기 시작했다. 이언 로버트 브릿지스 가 제 1인 시인(Poet Laureate in 1910)으로 활동했다. 장시 'The Garden of Beauty'가 류다수의 유언'은 너무나 유명할 정도로 많은 문인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그는 자연을 사랑함으로써 대 자연 속에서 무한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발견한 것 같다. 시사회의 시적 표현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처럼 시의 표현력은 몇 건까지도 무미 없었다.특색은 더욱 당나라 화되었다. *** <drnpa@msn1.com>

모교소식

모교 총장선거 교수 12명 “출사표”

간선제는 처음 ... 3단계 진행, 예비 후보자 5명으로 압축 후 2차 3명을 선정

서울대 법인과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장 선거가 12명이 나서 사상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예비 후보들은 지난 3월 14일 공표를 마쳤다. 장제선 전 공대 학장,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일명 전연대 학장, 박오수 전 경영대학장, 박준은 전 권외원외교장, 성낙인 전 법대학장, 오세경 전 기초과학연구원장, 이우일 전 공대학장, 정준식 전 법대장, 조동성 전 경영대학장, 조영달 전 사범대 학장, 황수민 전 사범대학장(가나다순) 등 12명이다.

모교 관계자는 “교수들 한결 열연한 표정이 관례화되고, 명예교수들도 도전이 가능해졌고,

간선제인 만큼 과거보다 선거운동이 수월하다고 판단해 후보자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991년 임명된 김준우 총장부터 2011년 현 총장까지는 교수·직원 등 학내 구성원에 의한 직선제 선거로 뽑혔다. 하지만 이번 총장선거는 서울대 역사상 처음 간선제로 치러진다.

취임선거가 선거인단에 들어간 것도 중요한 변수다. 간선제가 일단 의결을 담당할 경우 추후의 임명(총후위)은 서울대 내부 인사 20명, 외부 인사 10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된다.

한 총후위 위원은 “총장에게 공도모든 후보들에게 이미 언약을 받았고”라며 “직선제였을 땐 교수들의 협조를 받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30명의 위원을 공약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간선제로 치러지는 총장 선출은 크고 다양한 전당파를 아우를 수 있다. 총후위는 4명 총장에 공도모든 12명 후보 후보자 5명으로 압축된다. 소진 발표 후 추후자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예비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예비 후보자 5명 중 최종 3명의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다음 단계부터는 방식이 바뀐다. 총후위 위원 한 사람과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다. 총후위는 4명 중 학내 구성원의

10% 인 240여 명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을 가진다. 5월 2일 일일 교수자문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의 평가(400)와 총후위 위원들의 평가(600)를 합쳐 총장후보자자를 정한다. 최종적으로 이 사회의 총후자가 정한 후보 3명 중 1명을 자기 총장후보로 선출한다.

간선제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총후위 위원 한 사람과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다.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정

모교 도서관 신록 리모델링 기금모금 캠페인

모교 도서관 신록 리모델링 기금모금 캠페인

“서울대 도서관의 친구들”

모교 서울대 도서관이 40년 이상으로 노후 건물인 대과대학생이 사용수와 소장 장서의 보충상태를 함께 평가할 것이다. 도서관 재도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네이밍(Naming) 캠페인과 리모델링 모금 캠페인을 다음과 같이 벌이고 있다.

▶Naming 모금 캠페인 = 선배들이 기부해주는 금액으로 후배들이 사용할 책상, 의자, 시가예 선배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 후배들이 영령의 기억하도록 해놓는다. <도표 참조>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모금 캠페인 = 도서관은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현 중앙도서관의 환경 도서관과 함께 역할을 더하기 위해 새는 남은 시설의 리모델링 및 현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5월 이 사정을 전해받은 조친석 동문이 ‘중앙도서관 지원금 모금회’ 50억원, 이의

에도 300여 명의 동문들이 9억원이 넘게 기부했다. 중앙도서관 개관 40년을 위한 400억원 모금 캠페인도 동참해주어 후배들이

Table with 4 columns: 종류, 내역, 금액, 신청□. Lists various donation categories like '1. 열의상', '2. 서가', '3. 멀티미디어실' etc.

선배들의 정성을 새겨내 더욱 오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캠페인 기간: 지난해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모금 목표액: 3년간 총 1억 1천여 만 원의 운동회입니다. 이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http://friends.snu.ac.kr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대 여성 최정문 최연소 과외선생님

뛰어난 자질을 수월한 능력으로 '서울대 공대 여성'으로 널리 알려진 최정문(22) 동문의 '멘탈' 확보한 연장이 공개된 가운데, 과거 방송 출연 경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정문 동문은 지난 2007년 방송 출연 KBS 2TV '오렌지엔 애플나무'에 '최연소 과외선생님'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멘탈' 당시와 동문은 "21세 카리스마 있는 스타"으로 출연했다. 최 동문은 "중학교 2학년 때 나이보다 속이고 중학교 3학년에게 수학 과외를 맡아 주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방송에서는 '중매'가 나왔다. 중매이었던 최 동문은 재차 고교 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쳤고, 또 부러지는 정화한 실력으로 과외선생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이어 최 동문은 서울대생들이 어려워 하는 수동 물리까지 가르쳐 줄어준다는 자랑을 거론했다. 최정문은 당시 방송에서 공부 의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 결혼 평균비용 조사

남 1억6천, 여 9천400만원

결혼정보회사 '듀오'와 공동조사 결과 결혼비용을 조사 ... 주목해야 할 사항

모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결혼 정보업체 '듀오'의 '중년 라이프 연구소'와 공동조사로 남녀가 결혼에 드는 비용을 최근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결혼 비용은 평균 남성이 1억 6천여만원, 여성이 9천 400여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정보업체 듀오의 휴먼 라이프 연구소는 최인철 교수와 듀오의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2년 이력 결혼한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비용에 대한 결과를 최근 이처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결혼에 사용한 비용은 평균 2억 5천여만원이었다. 이 중 상당액이 분담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62.8%로 나타났다. 특히

측의 부담 비율은 37.08%로 비유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 지출비율은 ▶주매 1억 8천280만원 ▶예식장 1천580만원 ▶웨딩드레스와 예미정 1천670만원 ▶웨딩 1천555만원 ▶수준용품 1천500만원 ▶신혼여행 441만원 등이다. 휴먼 라이프 관계자는 "동계정액의 초혼 남성과 여성의 일련성은 각각 32.1%, 29.4세로 295만원만 상당의 결혼비용이 부담되는 데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원인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모교 단과대별 TEPS800점 이상 비율

| | |
|--------|------|
| 의대 | 75% |
| 경영대 | 70.3 |
| 자유전공학부 | 63.4 |
| 사회대 | 57.6 |
| 인문대 | 53.1 |
| 자연대 | 21.4 |
| 공대 | 18 |
| 농생대 | 14.6 |
| 미대 | 7.4 |

※ 2013년 기준
자료: 새누리당
박석호 의원실

영어 도사와 낙제생 양극화

모교 신입생 10명 중 1명은 The Test of English Proficiency or TEPS 점수 500점 미만의 '영어 낙제생'인 반면 900점 이상 '취자'

된다. '학생 비율도 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어' 영어 열풍 양극화'가 매년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 신부전 앞둔 UAE 환자

서울대병원에서 새생명 얻어

말기 신부전으로 생명이 위태로웠던 아랍에미리트(UAE) 환자가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도움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이 환자는 지방인 심장질환 때문에 중국 등 다른 나라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만성 신장질환을 앓은 UAE 국민 출신인 송탄(58)씨에 이환의 신장을 성공적으로 이식, 지난 2월 27일 퇴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식 가능한 병원을 찾아야 했다. 지난 해 4월 중국의 한 대학 병원에 이환이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신장이 불안정해 '신장이식은 힘들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가족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UAE 교민부를 통해 서울대병원에 연락했고 마침내 '수술이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 임명

올해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가 임명됐다. 서울대 측은 올해 대학원에 있고 있는 이환영 교수를 임시 성악과 학과장으로 임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수 채용 등 주요 입부를 담당하는 학과장을 타과 교수가 맡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수들 간의 교류를 위한 다목적 포괄적 임명"으로 성악과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8일 퇴원했던 이환영은 말기 신부전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환자였지만 이식 전 시술을 하는 병원이 없어 전 세계 주요 병원을 수소하더니

TEPS는 서울대가 개발하고 주관하는 공인 영어 능력 시험으로 지난 2009년부터 서울대 신입생은 모두가 시험을 치러 영어 능력이 평가된다. '최상급' 등급을 받은 학생은 120여 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어민급' 실력이라 할 수 있는 900점 이상 학생 비율은 2009년 6.9%에서 지난해 10.4%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상급 실력'으로 평가받는 800점 이상 학생 비율도 2009년 24.3%에서 2013년 32.9%로 뛰었다.

단과대별 학력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매년 80%가량 신입생이 TEPS 500점도 받지 못했다. 이 기간 800점을 넘긴 학생은 7명뿐이었다. 이에 비해 의대·경영대·자유전공학부는 3분의 2 이상이 80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인용>

서울대학과 그 기록, 그리고 수업을 지도할 서울대별별 관계자들이 지리를 함께 했다.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해 UAE 교민부와 협약을 맺고, 군인을 비롯한 다양한 공병별 환자들 중, 현지 치료에 불가능한 환자를 치료해줬다. 한국에 입국한 송탄씨는 지난 2월 10일 신장을 기증하기로 한 아틀 모하메드(30)씨와 나란히 병원 2층 수술실로 향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송탄씨는 이틀 후 건강하게 병실에서 회복돼 27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송탄씨는 "UAE 사람들이 한국에서 치료 받고 싶었다"며 "한국 의사들의 긴밀한 진료, 신속한 진료 절차, 국제적 수준의 진료 환경이 서비스에 감동했다"고 고백했다.

신장 상태를 평가하고 이식 후 관리를 담당할 양극화 교수는 "송탄씨는 심장질환의 기증병을 가진 환자도 신장인지 수술 준비가 쉬운 케이스는 아니었다"나 각 기관별을 통해 많은 절차가 수송 있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인용>

서울대병원에서 새생명 얻어

말기 신부전으로 생명이 위태로웠던 아랍에미리트(UAE) 환자가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도움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이 환자는 지방인 심장질환 때문에 중국 등 다른 나라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만성 신장질환을 앓은 UAE 국민 출신인 송탄(58)씨에 이환의 신장을 성공적으로 이식, 지난 2월 27일 퇴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식 가능한 병원을 찾아야 했다. 지난 해 4월 중국의 한 대학 병원에 이환이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신장이 불안정해 '신장이식은 힘들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가족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UAE 교민부를 통해 서울대병원에 연락했고 마침내 '수술이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 임명

올해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가 임명됐다. 서울대 측은 올해 대학원에 계와 중인 이환영 교수를 임시 성악과 학과장으로 임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수 채용 등 주요 입부를 담당하는 학과장을 타과 교수가 맡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수들 간의 교류를 위한 다목적 포괄적 임명"으로 성악과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8일 퇴원했던 이환영은 말기 신부전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환자였지만 이식 전 시술을 하는 병원이 없어 전 세계 주요 병원을 수소하더니



'Mom in SNU' 서정원 대표

"필요한 것은 학교 안에서 산모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아기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여야. 엄마 학생이 정액관리와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 생기는 엄마가 바로 대학학부였다"며 "수업 들을 때만 잠시 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엄마와 아이 모두가 좋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내 환경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우선 모유수유를 할 공간부터 부족했다. 3층 이하 층수에는 어린이집에 딸길 수 없었고, 또 모든 층에 손님이 밀려나오므로 영아실이 없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을 땐 수 있는 공간은 전체 캠퍼스 전체 중 2대에 불과했다.

이식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 임명됐다. 서울대 측은 올해 대학원에 계와 중인 이환영 교수를 임시 성악과 학과장으로 임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수 채용 등 주요 입부를 담당하는 학과장을 타과 교수가 맡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수들 간의 교류를 위한 다목적 포괄적 임명"으로 성악과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8일 퇴원했던 이환영은 말기 신부전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환자였지만 이식 전 시술을 하는 병원이 없어 전 세계 주요 병원을 수소하더니

연구자 보육원을 보장하면 우수 여성 인력이 사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돕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는 없다. 여기에 도장을 내던 이환영이 서정원(32·사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서정원 아이 학생 모임 'Mom in SNU'가

지난 2012년 2월 서정원 맘인스누를 출범시켜 대학 생활을 공부하는 엄마와 영아실을 돌보아야 하는 학생들 두 가지 모두 시련을 겪던 것이다. 서울대도 3월 1일 입상생 학과별로 장애인 주차장 전용을 허가했고 단과 입상생 영유아 동반이 중앙도서관 대홀에 방문해 원하는 자원을 요청하면 담당직원이 복을 가져다주는 데를 서비스도 시행했다.

이환영 교수를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 환자는 지방인 심장질환 때문에 중국 등 다른 나라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 임명

올해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가 임명됐다. 서울대 측은 올해 대학원에 계와 중인 이환영 교수를 임시 성악과 학과장으로 임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수 채용 등 주요 입부를 담당하는 학과장을 타과 교수가 맡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수들 간의 교류를 위한 다목적 포괄적 임명"으로 성악과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8일 퇴원했던 이환영은 말기 신부전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환자였지만 이식 전 시술을 하는 병원이 없어 전 세계 주요 병원을 수소하더니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 임명

올해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가 임명됐다. 서울대 측은 올해 대학원에 계와 중인 이환영 교수를 임시 성악과 학과장으로 임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수 채용 등 주요 입부를 담당하는 학과장을 타과 교수가 맡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수들 간의 교류를 위한 다목적 포괄적 임명"으로 성악과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8일 퇴원했던 이환영은 말기 신부전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환자였지만 이식 전 시술을 하는 병원이 없어 전 세계 주요 병원을 수소하더니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 임명

올해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가 임명됐다. 서울대 측은 올해 대학원에 계와 중인 이환영 교수를 임시 성악과 학과장으로 임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수 채용 등 주요 입부를 담당하는 학과장을 타과 교수가 맡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수들 간의 교류를 위한 다목적 포괄적 임명"으로 성악과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8일 퇴원했던 이환영은 말기 신부전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환자였지만 이식 전 시술을 하는 병원이 없어 전 세계 주요 병원을 수소하더니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 임명

올해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가 임명됐다. 서울대 측은 올해 대학원에 계와 중인 이환영 교수를 임시 성악과 학과장으로 임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수 채용 등 주요 입부를 담당하는 학과장을 타과 교수가 맡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수들 간의 교류를 위한 다목적 포괄적 임명"으로 성악과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8일 퇴원했던 이환영은 말기 신부전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환자였지만 이식 전 시술을 하는 병원이 없어 전 세계 주요 병원을 수소하더니

이 생기는 엄마가 바로 대학학부였다"며 "수업 들을 때만 잠시 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엄마와 아이 모두가 좋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내 환경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우선 모유수유를 할 공간부터 부족했다. 3층 이하 층수에는 어린이집에 딸길 수 없었고, 또 모든 층에 손님이 밀려나오므로 영아실이 없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을 땐 수 있는 공간은 전체 캠퍼스 전체 중 2대에 불과했다.

연구자 보육원을 보장하면 우수 여성 인력이 사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돕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는 없다. 여기에 도장을 내던 이환영이 서정원(32·사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서정원 아이 학생 모임 'Mom in SNU'가

지난 2012년 2월 서정원 맘인스누를 출범시켜 대학 생활을 공부하는 엄마와 영아실을 돌보아야 하는 학생들 두 가지 모두 시련을 겪던 것이다. 서울대도 3월 1일 입상생 학과별로 장애인 주차장 전용을 허가했고 단과 입상생 영유아 동반이 중앙도서관 대홀에 방문해 원하는 자원을 요청하면 담당직원이 복을 가져다주는 데를 서비스도 시행했다.

이환영 교수를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 환자는 지방인 심장질환 때문에 중국 등 다른 나라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 임명

올해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가 임명됐다. 서울대 측은 올해 대학원에 계와 중인 이환영 교수를 임시 성악과 학과장으로 임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수 채용 등 주요 입부를 담당하는 학과장을 타과 교수가 맡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수들 간의 교류를 위한 다목적 포괄적 임명"으로 성악과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8일 퇴원했던 이환영은 말기 신부전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환자였지만 이식 전 시술을 하는 병원이 없어 전 세계 주요 병원을 수소하더니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 임명

올해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가 임명됐다. 서울대 측은 올해 대학원에 계와 중인 이환영 교수를 임시 성악과 학과장으로 임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수 채용 등 주요 입부를 담당하는 학과장을 타과 교수가 맡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수들 간의 교류를 위한 다목적 포괄적 임명"으로 성악과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8일 퇴원했던 이환영은 말기 신부전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환자였지만 이식 전 시술을 하는 병원이 없어 전 세계 주요 병원을 수소하더니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 임명

올해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가 임명됐다. 서울대 측은 올해 대학원에 계와 중인 이환영 교수를 임시 성악과 학과장으로 임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수 채용 등 주요 입부를 담당하는 학과장을 타과 교수가 맡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수들 간의 교류를 위한 다목적 포괄적 임명"으로 성악과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8일 퇴원했던 이환영은 말기 신부전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환자였지만 이식 전 시술을 하는 병원이 없어 전 세계 주요 병원을 수소하더니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 임명

올해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가 임명됐다. 서울대 측은 올해 대학원에 계와 중인 이환영 교수를 임시 성악과 학과장으로 임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수 채용 등 주요 입부를 담당하는 학과장을 타과 교수가 맡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수들 간의 교류를 위한 다목적 포괄적 임명"으로 성악과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8일 퇴원했던 이환영은 말기 신부전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환자였지만 이식 전 시술을 하는 병원이 없어 전 세계 주요 병원을 수소하더니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 임명

올해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가 임명됐다. 서울대 측은 올해 대학원에 계와 중인 이환영 교수를 임시 성악과 학과장으로 임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수 채용 등 주요 입부를 담당하는 학과장을 타과 교수가 맡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수들 간의 교류를 위한 다목적 포괄적 임명"으로 성악과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8일 퇴원했던 이환영은 말기 신부전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환자였지만 이식 전 시술을 하는 병원이 없어 전 세계 주요 병원을 수소하더니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 임명

올해 성악과 학과장에 국악과 교수가 임명됐다. 서울대 측은 올해 대학원에 계와 중인 이환영 교수를 임시 성악과 학과장으로 임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수 채용 등 주요 입부를 담당하는 학과장을 타과 교수가 맡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수들 간의 교류를 위한 다목적 포괄적 임명"으로 성악과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8일 퇴원했던 이환영은 말기 신부전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환자였지만 이식 전 시술을 하는 병원이 없어 전 세계 주요 병원을 수소하더니



<기획> 한민족과 한반도

국민의 통일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역사적인 순간



윤상애(수의대 62) MA
뉴림글로벌 경영진 회장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해방된 한반도는 1943년 12월 11일 미국-영국-영국 카이로 협정(Cairo Conference) 국제연합에도 불구하고, 1945년 8월 10일 소련의 한반도 진출을 막기 위해 태평양 전쟁에 무참히 패한 뒤 제2차 대대미 제 48군단 38선으로 쪼개지는 것은 앞날의 비극을 예고했다. 이후 1948년 8월 25일 남한으로 지난 60여년간 쪼개져 온 우리의 대립 상태를 이끈다고 있다.

북한 정권의 비민주적 통치로 납치, 학살, 강간, 우산발 고문, 강제노동 등은 전 인류의 지탄을 받아오고 있다. 지난 2월 11일 UN 인권총회 위원장 Michael Kirby 는 40여 개국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은 미 고치 지못한 북한"이라고 밝혔다.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한반도의 통일은 어렵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일라.

“북한은 10-15년내 붕괴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리서치의 '세계경제 국제관계 연구소(IRES)'는 '2030년까지 미국 북조선은 멸망'이라며, 한(한반)으로 한반도 통일이 아시아에 국적이 될수 있다"는 보고

를 발표하며 "북조선은 10-15년 내 붕괴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리서치의 '세계경제 국제관계 연구소(IRES)'는 '2030년까지 미국 북조선은 멸망'이라며, 한(한반)으로 한반도 통일이 아시아에 국적이 될수 있다"는 보고

“북한은 10-15년내 붕괴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동문 한시 해설

月影臺

李洸

供秀 김기평(상대75)
납기주 동창회 재무국장

老樹蒼蒼碧嶼頭 孤雲遊鶴總成愁
只今唯有高寒月 留保精神向我留

‘고목과 기암이 드러온 푸른 바위가 절벽 아래/ 고요이 눈인 자취 얼어붙어 간 데 없고/ 오로지 눈은 대가 위에 단단히 매여/ 평범한 빛과 그의 정신을 내내 깨 비추어 주네’



<원시의 해설> = ‘고목과 기암이 어우러진 바위가 절벽 아래/ 고요 눈 한강듯이 거니던 모습 흔연하고/ 이제 저 푸른 눈이 물결과 흰 달을/ 나뭇잎의 울림을 뜻이 높을 뜻이 아득히 배워 주려 하신다!’

만 내지 50년의 백성이 투입되어 2007년 ‘통일 한반도 경제 2050년’이란 GP 6 trillion dollar로 일본·영국·독일보다 큰 경제 강대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Goldman Sachs의 ‘한반도 경제 2050’ 은 ‘통일 한반도 경제는 2050년이던 GP 6trillion dollar로 일본·영국·독일보다 큰 경제 강대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and Corporation's Bruce Bennett 는 지난 1월 29일, The U.S. 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정무 회의에서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라는 제목으로 그를 대외한 전략

“북한은 10-15년내 붕괴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10-15년내 붕괴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적극 지원할 것으로 믿어진다. 120여만 북한군대 무장해태를 위시한 그에 상당하는 실업대군이 마련돼야 한다.

“북한은 10-15년내 붕괴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10-15년내 붕괴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은 그야말로 '아시아 세기'의 주축으로 새 대역성 시대를 열게 되고 북북 아시아의 경제 중추역이 될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북한은 10-15년내 붕괴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10-15년내 붕괴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을 받고 있음을 경외하게 생각 하고 있는 듯 하다. 비록 세월은 흘러도 뜻은 풍광도 태도가 가 능함을 달빛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의 자락과 기운, 중장비가 투입 되면 여러 가지 한성이 일어난 까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은 10-15년내 붕괴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10-15년내 붕괴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10-15년내 붕괴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10-15년내 붕괴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미주 동문단체 및 동문동정(임부 중앙, 한국일보 인용)



박상근(반대 75) 변호사, 장경태(사대 75) 편집위원장

북미주 한인기독교실업인회 (CMBC) 차기(제12대)회장·사무총장 선임

박상근(반대 75-사친 율목) 변호사와 미주 동향교회 장경태(사대 75-사친 오윤복) 편집위원장이 북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회(CMBC)의 제12대 수석부회장과 차기 회장과 제2대 사무총장으로 각각 선임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텍사스의 달라스에서 열린 CMBC 임시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CMBC 동문은 현재 워싱턴 DC 지역 변호사로 CMBC 제12대 기탁회 회장인 임원이며 2016년까지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할 뒤 2017년부터 2년간 제12대 회장을 맡

을 예정이다. 박상근 동문은 그동안 CMBC 워싱턴 DC 지회장, CMBC 동부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CMBC 동부연합회 자문위원장, 워싱턴 지역 기독교계간 이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현재 미주 동향교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동문은 현재 CMBC의 워싱턴 DC 지역 지회장으로 제1대 이광인 사무총장으로 임기 3년의 자기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

장경태 동문은 그동안 워싱턴 중앙일보 사장 겸 발행인, 국가장관기초대 워싱턴 DC 지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0대 CMBC 북미주 대외 공동 총비서위원, 제20대 전국대회장, 2015년 6월 28일 뉴욕에서 개최하기도 했으며, 북미주 CMBC 역사 책자를 올해 중에 편집을 완료해서 제20대 대회를 기념해 발간하기로 했다.

제19대 북미주 대회는 올 6월 28일부터 28일까지 버지니아 Dulles 공항 근처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될 것이며, 동부연합회 주관으로 캔터빌 지회와 워싱턴 DC 지회 주회로 열린 계획이다. ***

송영한 시애틀 총영사시임 인터뷰



지난 2011년 3월 부임한 후 만 3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는 송영한 시애틀 총영사

데 언어학과 나와 위주부시(14기)를 통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송 총영사는 31년만에 처음으로 공관장 발령을 받고 시애틀 총영사관에 취임했다.

그는 "미국이 그동안 테러 일이 많이 해왔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총영사로 일하게 되 보니 놀라지 않게 이성과 현실의 차이도 상당히 많았다"고 회고했다.

"동포를 보호한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알린다"는 두 가지 과제를 충실히 하고 노력했다는 송 총영사는 "워싱턴주 등 서부미주주요지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 빈약한 편이 의외로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훈전 연립중을 우선시, 토인전, 아이리드 주와 같은 지역별 특색을 제해하는 등 총영사관 외교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송 총영사는 "제임 기간 중 추진한 업무 가운데 '교육문화'가 가장 중요했었다"고 말했다. ***



김국자 동문이 작품 전시장에서 부군 정덕순씨와 함께

김국자(간호대 63) 동문 전시회

김국자(간호대 63)이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권위있는 Art Club in The Philadelphia Sketch Club (화일 300여 명)에 Stewart Gallery 엑시비션 디렉터인 1개월과 지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Joint Solo Show의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작품이 전시된 빌딩은 아주 오래된 Historic Building으로 회원이 되면 임시로 가입이 가능해 무료로 김국자 동문은 지난 해 'Art of Flower' 공모전에서 2등상을 수상했던 곳이다. 이 공모전은 매년 200 - 300여명이 응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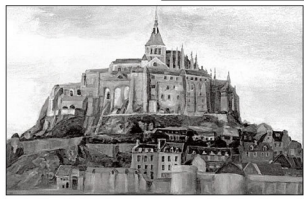
하는데 작품 중 3명의 심사위원의 개인적 추천으로 김국자 동문은 자비로 필라델피아 아티스트 하우스 화랑과 SPY Gallery 등에서 2점의 개인전을 수주했으며 공모전과 그 중점을 가장 많이 수상했었다. ***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오래한 박사(학대 66)은 지난 12월 19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1세. 캐나다 사스캐톤 대학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72년부터 미묘연구소(SNH) 연구원, 그후 퍼듀대학의 대학에서 교수로 30년간 재직. 서울대 워싱턴 DC지회 제16대 동향회장을 역임했다. 2005년 6월 고국에서 정경대 대학 석과 수료로 제직했다. 귀국 후에도 신경과학분야 연구에 계속하여, 과학기술원의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를 주도했다.



신경과학자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Inward와 딸 Catherine이 있고 자, 손녀를 두었다. ***



이정주(미대 65) 동문 개인전

서양화가 이정주(미대 65) 동문의 개인전 '브리타니아의 스키페'가 지난 3월 15일 버지니아의 버민다 스페트 갤러리에서 개막돼 28일까지 전시됐다. 이 작품전에서는 프랑스 북부

중세 도시인 브리타니아의 아름다움을 풍광화한 것과 동 20일이 선보였다. '동상미력' '기녀' '조주' 등 7점의 그림과 '생달로의 포트 내셔널' 등 12점의 풍경화

이정주 동문의 작품 Mini Saint Michel, oil, 19 x 24, 2014.

는 중세 고성, 성당, 피뢰침 등 조 건축물, 돌담, 지붕과 다량방울 등 역사와 시간의 흔적을 담았다.

이정주 동문은 개막 리셉션에서 "브리타니아의 아름다움은 자연과 불 대담 시에 위치하는 이층 3층 하린 투지지에서 추위하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작가로 발달한 그곳에 머물며 작업 했던 것들"이라며 "유구한 역사 속에서 도드라져 흐르는 시간, 자연의 힘, 유한한 삶의 의미 등을 찾고자 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DC 미술협회 회장 역임 후 고문으로 활동 중인 이 동문은 모교 미대와 동대학원 회화과, 프랑스 스페인 대학에서 미술사, 조지 웨스턴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버지니아 아로 미술대학에서 컴퓨터아트 스카르렛 레지던시 아티스트(2008-2013)도 활동했다. ***

저스틴 영 동문 어린이 특별클래스 개강

캘리포니아 새뮤얼 베이 서클 미술학원장 저스틴영클러에서 어린이 위한 특별 클래스 열어

임시 위주 미술교육에 위주된 미술교육계에서 바쁨을 일으키고 있는 저스틴 영 서클미술학원장(Justin Young)은 소계 현대미술 갤러리(South Bay Contemporary, 판각 레지 세크크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클래스를 열었다.

영 원장은 "한인 미술계가 창의성을 키워 풍광한 미술가 될 기회를 잘못 지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영 원장은 모교 미대 서양화학과 학부 대학원을 마치고 뉴욕 FIT에서 미디어자원을 전공했고 각종 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미술 교육 전문가다. ▶문의 (310)775-2277 ***

헬렌김 동문, 청소년재단 사무총장



뉴욕 가정상담소 홍보부장로서

청소년 재단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김 동문은 사무총장에 발탁됐으며 지난 3월 21일부터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단의 사무총장직은 김 사무총장이 인사팀을 이루며 사임한 이후 공백 상태였다.

지난 2011년부터 가정상담소에서 근무했던 김 동문은 한인 동포 2세대 킴 태우렌드 헤스스교로를 졸업한 후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8개 주에 재능기부자로 담 당하고 있다.

김 동문은 언론과 동포에서 "정말 많은 뉴욕 가정상담소를 떠나서 새 자유이 많지 않아요.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해 준 원으로 기꺼이 크레디트(원) 뉴욕 가정상담소 홍보부장을 지난 3월 내정했다. ***



김광식 전 총리 스탠퍼드대 에서 강연

“젊은 세대의 통일 관심이 숙제”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위해 남북 대화 포용을 이룩하야 한다.”

김광식(발대 총)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월 10일 스탠퍼드대 연설회에서 “한반도의 신뢰 외교와 평화포용”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코렛 재단(이사장 수산 코렛)이 주최하는 “코렛 명중의 시골데” 중 33회 강연회에서 김 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통일 전망과 평화 등에 대해 강연했다.

김광식 전 총리는 “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리되어 70년”이라며

“긴장은 세계 출범 이후 한반도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선 통일 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남북한 대화와 영합은 바람으로 ‘신뢰 외교’를 통해 한반도를 갈등의 공간에서 평화와 신뢰의 공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도발과 핵위기를 북핵완결의 안이되지만 민간 교류의 폭을 확대 북한이 경제적 성장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리는 또한 “오늘 젊은 세대들이 봉기를 초래할 경제적 부담을 느껴 공약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젊은 세대들의 통일 의욕과

10일 스탠퍼드대 연설나홀에서 김광식 전 국무총리가 ‘한반도의 신뢰 외교와 평화포용’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관심을 의지를 모으는 것도 시골데 의 숙제”라고 말했다.

한편 강연을 마친 김 전 총리는 기자회견실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총리는 “늘게 출범할 말 할 때 열심히 서울 시민과 달린 동안 마음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서민들을 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해 글로벌 브랜드를 가진 서울을 만들겠다”고 뜻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광주 제1공고와 서울에 법학파를 졸업하고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대법관, 감사원장을 거쳐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제41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LA 이법모(차대 74) 동문 3부자가 치과

“늘 웃는 치과” 며느리 2명도 같은 길 “말을 꼭 받고 자거리” 두 아들이 사업장 실업

“돈을 벌이 는 것, 남을 돕는 것, 그게 다 좋지 않은 무릇보다도 밤에 꿀떡 밥을 꼭 먹고 자거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존계조치는 매우 단순하고 들었다. 하지만 속뜻은 결코 오만 기간 사업생활을 하리던 일찍이 살아온 아버지의 경건한 아들들에 대한 사랑이 뚝뚝 배어 있는 가르침이다.

이전 가르침을 베푼 아버지는 LA 타운에서 “늘 웃는 치과” 클리닉을 운영중인 이법모(차대 74) 치과원장이다.

프린트로서의 기준이 바로 높은 문지방이다. 환자가 들이는 모든 것은 자신의 양심상 안락할 것으로 수준을 높게 정립하는 것이었다.

이 문지방을 넘길 수 있는 수준의 치료법을 해야만 입을 꼭 닫고 만족을 이룩 할 수 있다. 더 고차 무방을 넘지 못하면 스승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동문은 많이 알려진 제3 부자 치과 가족의 아버지이다. 83년생 큰 아들 중창(영어명 풀)씨와 85년생 둘째 병창(차대)씨도 치과 원장이다. 아버지 이법모는 1971년 미국에 와 USC치과대를 다녔고 두 아들도 버클리대를 나

이법모 동문은 3부자가 모두 치과 의사이고 모두 USC대 동문이기도 하다. 왼쪽부터 둘째 아들 병창 씨, 이법모 동문, 첫째 아들 중창 씨. <가주 제보>

와 USC치과를 졸업, 3대가 또한 같은 USC 치과 동문이기도 하다. 동문 3부자가 치과전문의인 가정 이 주류사외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중창씨가 여성 치과전문의에 결혼했고 둘째 병창씨는 약국으로 치과전문의라는 것을 들게 된다던... 여기에 더해 매너의 아버지도 치과 의사다. 결국 사촌을 포함한 가족 6명이 치과 선생님이이다.

이 동문의 만족스런 클리닉 운영은 정도를 지키기 때문이다. 만약 환자를 한눈에 받게 해주는 대상으로 본다면 얼마나 쉬운 사업일까.

“재능 수명이 높았습니다. 캐시어인과 처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요. 구강상태가 나쁘면 임상병행도 뒤입니다. 그냥 임상기만에서 죽는다”고 썼던 병창은 실상은 구강수술 병과 같을 수 있죠. 그래서 치과 예방이 더 신경써야 합니다. 잇몸치과만 잘해도 당수치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간 보인 이런 지어본 것입니다.”

“늘은 문지방”은 의사가 할 일이든 용이해질수록 가능하다는 관념도 내릴 수 있었다. 이들 부부들은 그냥 평범한 같은 부자가 아니었다.***

반기문 UN사무총장

영향력있는 하버드 출신 두번째



반기문(사진) 유엔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에 참가 영합력 있는 하

버드 출신임 20년에 정경배 두 번째로 이름이 올랐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하버드 출신임 20년 명단”을 발표하고 이 중 두 번째로 반 총장을 언급했다.

반 총장은 지난 1985년 하버드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고 2007년 제4대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된 후 제3기에 성공해 재임 중이다.

이번 하버드대 졸업생 20인 명단에는 정 예보(보통 뉴욕타임스 편집장과 벤 버냉기 원장급 매체도 시사해) 김 경, 최도환(2001년 주미 대사인, 2008회 고려경제경영학), 마이클 블룸버그(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하

BBC은행 이강택(상대 91) 뉴욕시장

BBC은행 북가주 분부장에게 임명



BBC은행이 SV저장 이강택(상대 91) 직정을 북가주 분부장으로 임명했다.

이 분부장은 또 “북가주 지역 지원영역에 관한 전반적 책임을 지는 자리로 본사와 북가주 지역 영업망 사의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주요 역할을 해 나갈 것”이 라고 자국을 다졌다.

BBC은행은 “세계에서 최고 이력률의 미국인 지가 선정된 America’s Best Bank스 중 Top에 선 순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현재 최고 이력률의 은행 30위에 들 정도 이상일 정도로 이 및 몇몇은 바로 지난 2013년 글로벌 은행 순위에서 14위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BBC은행은 명실상부하게 미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인은행으로 명성을 올렸고 2013에서 20년 간의 M&A를 통해 글로벌로 진출한 뉴욕주지 워싱턴주와 일리노이주 버지니아주 등 6개 주에 80개 지점을 확보하고 등 성장영역을 넓혔다.

이 분부장은 모교 경영학과와 UC버클리 MBA 졸업 후 한국 수출지원센터에 근무하던 중 금융부와 SK은행 기업은행에서 6년간 근무하면서 지니고 있는 풍부한 은행 업무 경험은 예외사항이 있었으나 매우 전문화된 지점에 임명할 수 2007년부터 클리닉리틀 2 지점장을 역임했다.***

윤동중 동문 취주 갑입치로 서비스

취주드스 통등에서 완성해방 갑입치로 무료 입진 서비스

캘리포니아 유동중 취주선정 병원(원장 윤동중)이 취주드스 C 환자들의 통증 해방을 위한 고차원 치료법을 선보였다. 윤동중 원장은 모교 미메이 UC 버클리, UCLA를 거쳐 미국 취주선정 전문가와 미국 취주선정 병원 지휘원으로 활동 중인 겸임이 전문 의료인이다.

윤 원장은 “최첨단 디스크 강압시스템인 DRX 9000을 통해 신경을 과학한 환자 수에 많은 혜택을 보았다. 여러 후속의 강압제기가 갖기 때문에 병행 진행해도 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

고 있다.

“갑상갑골의 임핀 치료와 달리 관외외 하리도 반드시 시에서 제공받은 코드 교육을 이수하여 하며 중환자 치료와 전문을 습득한 의사만이 최고의 결과를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동중 원장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치료에 한해 갑입치로 무료 입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디케어에 속하는 노인에게에는 더 큰 폭으로 할인 제공한다. 진료 시간은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이며, 2014년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일주 5일, 8281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714)539-1717**



워싱턴 DC 공대 동창회

정기총회 및 Annual Banquet

워싱턴 DC 지역 공대 동창회(회장 정기호 회장학과 62)가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부터 버지니아의 Annandale에 소재한 Palace Restaurant에서 '2014년 정기총회 및 Annual Banquet' 행사를 가졌다.

부부 동반으로 이루어진 이날 모임에서 정기호 회장은 "올 해의 좋은 정발 추웠고 눈도 많이 내린 건 겨울이었는데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이번 모임은 참석자들이 지극히 재조할 것으로 예

측히 유산될 뻔 했으나 안태연(도목과 02) 신배와 김시현(산림공학과 71) 동문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이르러진 성황을 이루게 됐다"고 두 동문을 치켜세웠다.

특히 안태연 동문은 동문 모두에게 e-mail을 보내 참석을 독려했고 김시현 동문은 전화로도 부탁했다는 것, 이에 감사한 모 든 동문들이 큰 박수로 두 동문에게 치하했다.

정기 총회는 저녁 식사후 이루어졌다. 정기 총회에서는 자기 회장을 임원선에 대한 선임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 자기 회장으로서는 현순호(전기공학과 09)

†공대 정기 총회 겸 Annual Banquet에 참가한 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Dancing Director로 초대한 Paul씨도 참여했다.

—이날 댄스 디렉터로 초빙된 Paul과 Lorinda Mola부부가 정기호 회장과 자리를 같이 했다.

동문인, 부회장은오는 이경훈(전자공학과 74) 동문이 만장일치로 각자 선임됐다. 부회장은 자자기 회장으로 추대될 계획이다. 홍우는 박예민(전자공학과 74) 동문이 봉사해주고 있다. 다만 현순호 자기 회장은 이날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동문들은 이날 특별한 Dancing Director인 Paul과 Lorinda Mola 부부를 초청해서 Dancing에 대한 특별 교습시간을 가졌다.

정기로 회장은 "이들 외에도 dancing을 위해 아주 고고 아릿



마음 도우미들을 부르려고 했으나 도인 유산 위기로 위소해 큰 아슬이 넘어난다"고 말했다.

Paul씨는 인사말에서 "서울대 공대 동문 총회에 참석하게 된

것 만도 고마운 일인데 같이 사 진까지 함께 찍게 해주어 큰 감으로 생각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Slow... Slow..., Quick Quick Slow..."

"Slow...Slow, Quick Quick Slow... Left and Right..."

"partner의 허리에 두손 손을 트라벨 들고 가운데 자세로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너무 뻣뻣해서 몸무나가 걸이거듯 해서는 부

자연스럽지요."

"One..., two..., three..., cha cha cha..., one, two, one, two..., cha cha cha..."

"차차하는 볼을 댄스와는 다릅니다. 차동자를 운전하듯이 여

†동문들이 댄스선 가운데 Paul과 Lorinda Mola가 댄스의 시범을 보이고 있다.

성을 잘 운전해야 해요. 허리를 좀 더 좌우로, 그리고 앞 뒤로 요령있게 잘 흔들어주는 것이 차차의 큰 매력이기도 합니다."

이날 Paul씨는 먼저 Lorinda



†이날 공대 동창회 최고 회원 홍용석(59년 입학)씨가 부부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부회장이며 자자기 회장으로 선임된 이경훈(전자공과 74) 동문 부부가 댄스하는 장면이다.

Mola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동문들의 댄스 교육에 나섰다. 유머를 섞어가면서 원순과 오문순의 위치, 그리고 stop을 할 때는 자세와 손시를 볼로 부드럽게 마무리를 받게 받았다.



동문 중 한 문은 "실제로 쌍쌍 댄스를 스텝도 무시하면서 막춤 식으로도 추곤 했는데 자세한 수기를 정광희님 기법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았다"고 평했다.***

대 뉴욕지구 서울학대 신년 축하 동문의 밤 SEOUL NATIONAL UNIVERSITY



뉴욕 학대 동창회

플러싱서 ‘신춘 동문의 밤’ 개최

뉴욕의 학대 동창회(회장 이종대·약학과 65)가 지난 3월 8일(토) 저녁 뉴욕시 플러싱에 위치한 대동원회관에서 2014년 ‘신춘 동문의 밤’을 개최하였다. 80여 명의 학대 동문과 배우자 등이 참석한 학대 동문의 밤은 오후로 13회를 맞이하였다. 감영린 총무(약학과 72)의 사회와 이대원 부회장(약학과 65)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학대 ‘신춘 동문의 밤’ 행사에는 박상원(응대 60) 뉴욕 총동창회 회장, 손병하 뉴욕 총동창회 이사장, 이준영 골든클럽 회장, 미주 동창회 이진구 전 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이날 이대원 회장은 “뉴욕대 13개의 서울대 단과대학 동문회와 수 많은 여타 대학교 동문회가 있지만 우리 학대 동문회가 다른 동문회의 귀감이 되고 자랑스런

을 모임이 될 것은, 역대 회장단과 일일인, 그리고 이사의 견제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동문회를 아끼는 동문 자 자가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덕분”이라고 모든 동문들의 관심과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 회장은 지난 1년간 뉴욕 학대 동문회를 이끌어 온 결연 회장단(이승우 회장, 고강희 이사장, 감영린 총무)과 펠자(뉴욕 총동창회 전 회장)에게 그동안의 헌신과 봉사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이날 축하 공연으로는 이진구 전 회장의 하모니카 연주, 시은 유 스프라노와 사비나 김 메조 스토프라노의 2중창(이은미 피아노 반주), 최자훈·박태연의 한국 타악기 연주 등이 있었다.

축하 공연 후 상기도 이사장(약학과 87)과 김태로 시악사(약학과 25)의 건배로 시작된 만찬



1 왼쪽부터 이승우 전 회장, 고강희 전 이사장, 이대원 현 동창회장, 김창수 뉴욕 총동창회 전 회장, 감영린 총무 등이 ‘신춘 동문의 밤’ 행사 후 기념 촬영을 했다.

과 댄스, 그리고 여러 가지 흥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동문들

이 밤을까지 즐기며 유쾌와 담소 시 시간을 가졌다.**

<글 = 김창수 동창회로 는설위원 사진 = 손갑수(약대 50) 등>



뉴욕 골든클럽

‘2014년 신년 교례회’ 열어

뉴욕 골든클럽(회장 이은영·공대 48)의 2014년 신년 교례회가 지난 3월 1일 플러싱 대동원회관에서 회원과 가족 등 모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모두 3부로 구성된 이날

행사는 오후 5시 제1부 라테일, 제2부는 흥중만 사무총장의 사회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에 명예 회원을 추가해 건강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원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특별회원으로

로 변경해 회보 등을 계속 우송 하기도 결정했고, 이준영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했다. 이 회장은 인사담에서 “앞으로 20년은 내다보며, 정인식 수석부 회장을 중심으로 골든 클럽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 하였다. 이어 지난 해 신년 교례회 이후 임피한 김재경·태상규·임도학·김원중·홍예경·이홍식·김정수 회원의 기념촬영 순서가



1 2013우수골드로 흥중만·고재수·최진·정도현·손경태·손정자 회원이 선정돼 상금과 부상이 수여됐다.

있었다. 2013년 우수골드 시상에는 누최상금 \$100이상을 기록한 고재수·손경태·정도현·최진·정도현·손정자 회원에게 상금과 부상이 수여되었다. 이대영 회원의 사회로 간행된 3부 여흥 순서에서는 김정연 동문회장의 유미와 제정 분담, 전 회원의 축하송 소개를 이어 갔고 김원중·김홍준·최수은·윤경수 회원의 덕담순서가 있었

다. 경품 추첨은 순서 중간의 막간을 이용해 진행됐는데, 이준영·정인식·박동영 3명이 기증한 현금·Smart TV 4대는 이진구·정인식·조달용·최학주 회원에게 행운이 돌아갔다. 김창수·김문경·김재경·김중석·김원중·성기호·송홍길·송학찬·이광수·이대영·이준영·임호준·고재자·최수은·안정수 회원도 경품을 받았으며 회원의 축하송 소개를 이어 갔고 김원중·김홍준·최수은·윤경수 회원의 덕담순서가 있었

<글·사진 = 김원영(미대 81)>



취임단주 동창회

1 임원진 수석총무 지택에서 열린 2014년 신년하례식에서 참가 동문가족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임원진 총무 자택에서 신년하례식

취임단주 동창회(회장 이원섭 회장 77)가 지난 2월 22일(토) 저녁(임원진-공대 84-수석총무) 자택에서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낮에 파티를 준비하는 동안, 올해 모든 동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뜻, 길 마당에 어린 사슴 새마리가 잔디밭에 놀러와 평화롭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행사는 가 동문들이 두절하게 준비해온 각양각색의 일회용 음식들을 함께 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초 '대장급상'을 뽑기로 공지하였으나, 모두들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해 왔는데 누구 하나를 박히 뽑을 수가 없어, 결국 대장급상은 결정하지 않았다. 음식은 준비해 온 모든 동문 가족들, 수고 많이 하셨다. 신년 하례식에는 이원섭·임원진·윤석진·최환준·김순애·이정관·이정재·이종상·김진근·오래성·윤태는·백준우·이희백·김민재·하주홍·김부흥·전재은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리안전으로 6월20-29일에 Washington DC에서 총동창회 모임이 있음을 공지하였고, 참석을 원하는 동문은 비용 본인 부담으로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을 공지했다. 지역 상인위원(Washington 주 5명)은 기념책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3월 15일까지 관악연대(아크로폴리스) 대표 1-2명을 선정하여 본부에 연락하기로 했다. 2014년 총동창회 conference를 관악연대 회의(6월 20일)에 참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창회에 신규참여 동문을 배가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몇가지 안을 토의했다. 우선 ▶8월 6일 여름 picnic까지와 동문들이 1월 이상 태워오기 ▶태워오지 누구나 한 번 이상 발표하도록 하기 ▶자기 동문 회장을 여성에게도 문호를 열기 ▶총무-회장단이 시간을 할애하여

각 개인에 전화하기 ▶깊은 동문 5-6명 정도를 모이게 하여 연례 만남으로 숫자를 늘리기 ▶깊은 만남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online 에 blog 만들기 등이다. 올 송년회는 12월 7일(Hotel Hyatt)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은 장례식 등에서 조의를 표하는 데 사용하는 것만으로, 한국에서 이미 보편화 되었다고 한다. 이 조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회원에게 안내하고, 앞으로는, 동문의 장례식이 있을 경우 유가족 및 주만 단체에 문의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의를 주문하는 대신, 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 2월 22일 정장인 박사 추모식에는 김부흥·윤태는·이정재·이종재·이원섭 동문 4명이 참석해 조화를 전달한 바 있다. 총회를 마치고나서는 회원 상호 간에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는 새해 인사와 덕담을 서로 나누었으며 그 후에는, 전통적으로 해운 용돌이를 하였는데, 각 팀으로 나누어 게임을 하였고, 각 팀마다 최고득점 부부와 최하 득점 부부에게 상등을 증정하였다.

게임을 할 것인지 하겠는 데, 원래 온 가족이 취미 있는 동물이 영와 체육을 맞추는 게임이다. 각 팀을 정하고 팀마다 한 부부씩 나머지 소리를 내지 않고, 몸으로만 동물 이름과 영와 체육을 연중하고, 나머지 팀 동료들은 그 이름을 맞추는 아주 재미나는 게임이었다.*** <출-시진 = 임원진(공대 84) 취임단주 동창회 수석총무>



1 윗돌이를 비롯해서 카드에 찍혀 있는 동문 이름과 영와 체육 맞추기 등의 게임 등을 실시했다. 이날 상을 받은 동문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러 가지 게임 중 한 동문은 자신의 등에 부인을 밟을 때 두어 실수를 빚길 돌아오이는 장면을 연출해 동문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웃놀이 · 카드게임





뉴잉글랜드 동창회

NE과기협·MIT한인대학원학생회 '인생설계 한미당' 후원

풍성한 후원과 함께 많은 참석자들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자리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장수인 총대 78)가 뉴잉글랜드 과학기술학회(회장 이계형 총대 91)와 MIT 한인대학원 학생회가 지난 3월 8일 MIT에서 과학기술을 mid-career 전문 직장인을 위해 공동주최한 '인생설계 한 미당' 행사를 후원했다.

이 행사는 과학기술 본부와 삼성 SDS-스튜디오 같이 후원했다. 이계형 박사와 MIT 한인대학원 학회회장이 공동 진행을 맡은 본 행사에서 50여 명의 참석자들이

강의를 박 세운 가운데 한국 기업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미국에서 계속 남아 현 조직에서 성장하든지 창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녀교육과 은퇴, 세금과 영구연금-시민연 문제 등에 필한 깊은 고민에 대해 심층적이고 어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내용의 강연 및 패널토의 시간을 가졌다.

기조강연으로 한국-미국 교수연합 회의에서 과기협 관계 세운을 역임한 이강원 교수(공대 65-IRI)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민하는 후배 과학기술자들에게

1 인생설계 한미당에서 연사들의 강연을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가 이날 기조 강연을 해준 이강원 교수(공대 65)이다.

커리이 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대한 조언을 들려주었다. 이어 미국 대기업과 한국 대기업의 정책을 고루 갖춘 박익시 박사(GSN Boston North)가 커리어 계획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전했다. 또 Nuance Communications의 도성우 박사(공대 88인)가 자녀교육 전반과 은퇴, 세금, 영구연금, 시민연 이슈에 대해서 다루었고 NE 과기협 지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컨설턴트로 일 하고 있는 이종시 박사와 미국 기업에서의 성장과 창업 부분, 한국에서의 연계, 은퇴준비에 대하여 세운을 역임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S-스튜디오에 소속으로 인디애나 대학에서 MBA

과정 중인 김성진 과장이 한국 기업으로 옮기는 것이 가치지 않은지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한국교육의 전반적인 질상에 대해서도 스트리 밸런스 형식으로 들려주었다. 각 강연에 이은 질의 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주제 관련 질문들로 행사의 열기가 더욱 예열고 공감충동이 절정까지 몰려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행사를 함께 하여 참석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려는 시간을 가졌다. 1부 강연시간에 시간경과적으로 나눠 뜻한 이들을 집중적으로 나누는 가운데 정중동 회장의 자리가 되었다. 이번 행사가 애매하게 진행되었었다. 아마도 상동원, 32B 갤러리 노

드 등의 정중 추천 시간으로 행사장의 분위기는 환호와 아쉬움이 교차되었고 MIT에서의 강연 및 커리어 포럼 마치고 인턴식 당으로 이동하던 강연자와 참석인 가운데 개별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참석자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 함께 한 참석자는 "직장생활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위한 내용은 다른 행사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변하고 흥미롭게 진행이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한 자리였다고 내 커리어와 지식교육, 은퇴 부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이강원(공대 66) 교수

대한민국 대통령 훈장 및 표창장

지난 3월 10일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이강원 교수(공대 66)에 대한 대통령 훈장 및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다.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이를 전달한 박성로(문리대 77) 총영사는 축하사를 통하여 "이강원 교수의 평생 동안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공로에 감사드리며, MIT 뉴잉글랜드 한인 회장, 세미 과학기술자 협회 총회장, 폭터 한인 교수협의회 총회장, 지역 교회

지도자 등의 활동을 통하여 한인의 위상을 높인 것은 물론, 지역 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음을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감사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강원 교수는 "본인이 받는 이 상은 내가 꿈이 있어서 아니고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조국과 같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을 더 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라고 답사를 하였다. 이 교수는 또한 "우리 한민족은 나라가 적대국도 더 큰 보루를 가진 대민족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데 필수 조건" 이라고 언급 하였다.

이강원 교수는 우리 한민족의 영혼을 숙명인 '한민족 통일'이 이 행을 이룰 수 있도록 남은 여생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강원 교수 프로필
▶ 서울공대 총(토목공학, 1974)
▶ 미시간스 뉴저지 주립 대 공학 석사, 1976 ▶ 미시간스 뉴저지 주립 대 공학 박사(토목공학 1982) ▶ 서울대 행정대 조교수(1982-85) ▶ 동원대학교 사사디 아바라(노) 대 단장 겸 이사 겸 ▶ 도로지 아일랜드 주립대 교수 및 도로공학 연구소장(인원실정중학, 1986-현 재) ▶ 현재 여러 한인단체장 겸회장의 총회장 수 ▲ 현재 폭터 한인대학과 교수협의회 총회장 ▲ <사건 및 기사제목> = 운산성수회(대) 62) NE 동창회 전 회장>

이강원 훈장은 "본인이 받는 이 상은 내가 꿈이 있어서 아니고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조국과 같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을 더 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라고 답사를 하였다. 이 교수는 또한 "우리 한민족은 나라가 적대국도 더 큰 보루를 가진 대민족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데 필수 조건" 이라고 언급 하였다.

이강원 교수는 우리 한민족의 영혼을 숙명인 '한민족 통일'이 이 행을 이룰 수 있도록 남은 여생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강원 교수 프로필
▶ 서울공대 총(토목공학, 1974)
▶ 미시간스 뉴저지 주립 대 공학 석사, 1976 ▶ 미시간스 뉴저지 주립 대 공학 박사(토목공학 1982) ▶ 서울대 행정대 조교수(1982-85) ▶ 동원대학교 사사디 아바라(노) 대 단장 겸 이사 겸 ▶ 도로지 아일랜드 주립대 교수 및 도로공학 연구소장(인원실정중학, 1986-현 재) ▶ 현재 여러 한인단체장 겸회장의 총회장 수 ▲ 현재 폭터 한인대학과 교수협의회 총회장 ▲ <사건 및 기사제목> = 운산성수회(대) 62) NE 동창회 전 회장>

이강원 훈장은 "본인이 받는 이 상은 내가 꿈이 있어서 아니고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조국과 같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을 더 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라고 답사를 하였다. 이 교수는 또한 "우리 한민족은 나라가 적대국도 더 큰 보루를 가진 대민족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데 필수 조건" 이라고 언급 하였다.

이강원 교수는 우리 한민족의 영혼을 숙명인 '한민족 통일'이 이 행을 이룰 수 있도록 남은 여생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강원 교수 프로필
▶ 서울공대 총(토목공학, 1974)
▶ 미시간스 뉴저지 주립 대 공학 석사, 1976 ▶ 미시간스 뉴저지 주립 대 공학 박사(토목공학 1982) ▶ 서울대 행정대 조교수(1982-85) ▶ 동원대학교 사사디 아바라(노) 대 단장 겸 이사 겸 ▶ 도로지 아일랜드 주립대 교수 및 도로공학 연구소장(인원실정중학, 1986-현 재) ▶ 현재 여러 한인단체장 겸회장의 총회장 수 ▲ 현재 폭터 한인대학과 교수협의회 총회장 ▲ <사건 및 기사제목> = 운산성수회(대) 62) NE 동창회 전 회장>

기사-사건 / 이재형(공대 91) NE과기협총회장 NE 동창회 기획국장 >



남가주 골디 동창회

Westridge G.C. 에서 골프대회

남가주 골디 동창회(회장 김영도 71)는 3월 15일(토) Westridge Golf Club에서 20여명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화창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친목행사용 골프대회를 가졌다.

김영도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김용성(학공 79), 총무 박찬원(71계 81), 회계 석호태(진축 85) 등본 동 일원친들은 일찍부터 현장에 나와 미리 준비를 하는 모습에서 동문들간 오붓하고 화분하고 단결한 느낌을 주었다.

멋진 묘자를 쓰고 나오는 환분한 분위의 동문들이 캄퍼스 시설의 끝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미묘 미국 인 생황에서도 번갈아는 당당함으로 비치고 있었다.

기념 촬영 후 11시 30분부터 여성 4명이 먼저 선두로 앞장섰고

8번 관적으로 동문 모두가 저마다의 실력을 겨루었다.

어떤 팀은 심각하게 별도로 케인을 하여 그 수익금을 별도로슨(노명호 전 회장) 하였으며, 또 어떤 팀은 건강에 좋은 농담과 웃음으로 하루를 즐겼다.

이 날 일상한 수상 동문은 다음과 같다.

▶메달리스트 = 남생(노명호·토목 61)·이석재(진기 68) 공동 1위), 여성(Mrs. 서지원(진기 89))

▶진타상 = 노성(대용관·건축 57) 여성(Mrs. 이석재)

▶근접상 = 이민기(화공 86)

시상식과 저녁 식사는 바로 골프장 인근에 위치한 노명호·남가주 동창회 전 회장 맥에서 치러졌다.

동문들은 모두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 Mrs.노명호에서 준비한 맛있는



1. 노명호 전 회장(토목 61) 맥에서 저녁 식사 전 시상식이 이뤄졌다. 왼쪽부터 김영도(71계 67) 골디 동창회장, Mrs.서지원(71계 89), Mrs.이석재, 이민기(화공 86), 이석재(진기 68) 동문.

갈비를 정원에서 구웠는데 동문들은 이구공성으로 "소다로 갈비를 먹고 미리 한국산 배로 제위

진 그 맛은 말을 멈추게 할 정도의 일품이었다"고 극찬했다.

Mrs. 김윤은(김병연·용용수학 68·골디 동창회 전 회장)에게 제 회칙은 이날 문리과의 정밀원으로 활가했는데 넘치는 제치와 워브로 활가자들을 웃음으로 가득 채게 했다. 이로 말미암아 이날의 분위기는 서로 선우배가 아닌 행님 아우로 열지 않으며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글> 사진 = 백목자(을대 71) 미주 동창회 조직국장

—노명호 전 회장님에서의 아무 슬픈 저녁 식사와 파티 후 동문들이 아쉬운 나머지 한 장면 '찰칵' 했다. 왼쪽에서 두 번째가 필자.



남가주 동창회 노명호(토목 61) 전 회장은 골프대회 후 참가자들을 자택으로 초대해 맛있는 음식과 함께 멋진 파티를 열어주었다.



남가주 동창회 Winery 모임

LA의 Montanita Vineyard 탐방

시의 음력과 음악의 향연과 자연의 그리움을 갈구하는 남가주 동문 12명이 3월 22-23일까지 1박2일 winery 여행을 떠났다. 101 Freeway를 70내 음악 CD를 들으면서 1번 Freeway로 들어서자 시월한 바닷가 풍경이 오르면 예 파도가 예 내리듯 각자의 마음을 씻어 주고 있었다. 운전기사로 수고한 김기형(상대 75) 동문은 Santa Barbara에서 Liquor Store를 하는 친구에게서 Santa Barbara local beer를 Donation하여 모두 한 모금씩 기분 좋게 목을 축였다. 약간 허허시(?)였던지 밤 길로 걸어들었는데 "어머나, 이곳은 가이 싶었던 바로 Santa Barbara University)에

요"라고 하자 김 기사 양반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오후 1시와 Refugio State Beach에서 내리 새벽 5시부터 준비한 반찬, 평양도 갖, 주먹밥, 김치, 평안 도시락, 생파왕사, 순두부 CD, 그리고 바닷가의 오존이 절실히식을 더 욱 향기롭게 했다. beach를 둘러 돌리 가니 행선지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다. L에서 3시간 정도. 이틀도 예쁜 Avila Beach에 닿았다. 바다 밑둥이 참아웠다. Pier 일기에서 순바닷만 끝과 조개-꽃게-새우 등을 그 근처에서 캐주는 노점의 큰 행랑은 언덕이 많이 파서인지 조고조까귀지 준비해 있어 2월 정도는 생굴을 한 달씩 맛보았다. 또 Caycos

Beach 마을의 예쁜 상점들이 용가주기 있어 소파도 시킬 걸 각자 소정의 품으로도 즐겼다. 특히저 Catriona의 LA Montanita Vineyard (9190 via La Montanita, Cambria, CA 91428 Tel: 805406-3204) winery에 도착하니 Mrs. Chris Olsen이 마중나와 안내했다. 항상 펄시 winery만 보았는 데 여긴 숲 속 작대기에 큰 지막이 내려다 보고 있다. 160 acre 포도밭은 작은 2개의 Not이 있고 제조상의 wine는 30통 정도는 Oak Tree에 담겨 있는데 Mrs. Olsen이 제조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멋진 집은 Mrs. Chris Olsen이 직접 설계했으며 땅에서 내려다 보는 풍경은 천국에 온 느낌도 될 정도로 마냥 머물고 싶은 풍경 중은 받았다. 각자 여정을 즐기고 Mrs. Donyse Olsen이 준비한 baby park ribbon 파티가 끝나는 차별한 소스를 가미한 맛은 Tony



1 앞줄 왼쪽부터 백옥자-양승연-김민희-Ms. Donyse Olson, 뒷줄 왼쪽부터 홍신애-김병민-권국환-김미주-홍준식-최진석-김기형 동문.

Roma's Restaurant 바로 두 번째 홍신애(미대 02) 미대 동창회 권회장이 Comic Dream 2년 1월을 기증했다. 주홍색상의 그림은 주홍색을 해설하고 조화가 되었다. 다음날 아침 풍문을 열었다. 열거한 산봉우리에는 한 폭의 풍광 화로 잊지 못할 아름다움도 모두 Mrs. Donyse의 안내로 산책했다. 쿨가워 산 길을 구부러 내려가는데 아무런 구도 rest area가 없었다. 평담한 상황에서 수선차를 멈추고 언덕(7)까지 올라가려 했는데 큰 나무의 울타리에 낙엽이 있는 평담한(7)은 여성들이 사뿐히 앉았다 나올 수 있는 자연 실내재이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지런일이 다 일어 마련이다. Ojai지역의 Lake Casitas를 둘러싼 산도 Mrs. Olsen의 자연에 관한 하여 어떤 장담사를 위해 갔다. 방향이 잘못해 다들 다거리로 미루는 아쉬운 여운은 남았다.*** <글 = 백옥자(상대 71) 미주 동창회 조직국장, 사진 = 홍신애(미대 02) 남가주 미대 동창회 전 회장>



백문부 동창회

일부 동문 서울에서 신년 하례식

SMIA Vancouverites in Seoul! 백문부 동창회(회장 이영규 총대 00)의 일부 동문들이 고국에 나간 길에서 서울에서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백문부 동창회는 원래 2월 중순으로 신년 하례식을 계획했으나 병오(庚午)을 치르고 한국에 제후 출근이어서 신년 하례식 대신 신년하례 겸 모임을 갖게

될 것이다. 최고 노년 박민철(48년) 동문은 비롯해 김형선(53), 현일상(63), 이시성(66), 조석기(71), 김용진(76), 박병우(76), 안복선(76), 김현승(79), 이강수(81), 유태운(84) 동문이 같이 했다. 이날 백문부 서울대 동창회에서 항상 느끼는 대신배들의 건강과 고향동정인 모습을 다시 한 번

1 신년 하례식을 위해 서울의 음식점에 모인 동문들 모습이다. 특이 80중반 연세의 박민철-김형선 동문은 멋진 노년상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김형선 신년배에서 "꼭 노래방을 가야 한다"는 '강주' 제안으로 김형선 4명은 밤 12시를 넘기며 즐거운 음주거부를 즐겼다. 이날 모임엔 김형선 이시성 신년배는 다음과 같이 축하했다. "마실 서울에 와 계시는 박민철



1 음식점의 신년 하례식 후 김형선 신년배에서는 한시조 노래방에 가이 한다는 '강주'에 따라 이날 밤 12시를 넘기는 거부를 즐겼다.

신년배. 오랜만에 만난 김형선 신년배는 40년 배본은 일부가 지난해와 있는 유래준 동문. 서울에 상주하는 동문들 모두 반갑고 즐거웠던 만남이었습니다. 40년대 학번부터 50년-60년-70년-80년대 학번이 다 있었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좋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분의 건강하신 80대 후반의 박민철 신년배. 항상 예민하지 넘치는 80대 초반의 김형선 신년배는 대단하셨습니다. 정말 즐겁고 뜻깊은 만남이었습니다. 두레들도 박민철 신년배, 김형선 신년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글 = 박병우(76)>

논설위원 생활수필

내 어릴 적 이름 ‘김일성’

김일성(외대 51) CH
미주 총학생회 논설위원

나의 어릴 적 이름이 ‘김일성(金日成)’ 이었던 것은 몇 친구들과 함께 일었다.

그것이 아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총학생회 다녔다는 중국 동북성의 친구들 도지 김필(吉林)에서 나오는 소문까지 보았고 그 곳에서 총학생회를 다녔다. 그리고 보니 시간적인 격리만 있었지 그와 나는 같은 공간에서 동행이었던 셈이었던 것이다.

▶**어릴 적 김일성** = 이름이란 작위를 표시하는 이름 일뿐으로 크게 중요할 게 아니라면 보통 어떤 가정에서는 이름도 재귀고 말해도 되고 해서 젊은 부모들은 아이도 이름을 새로 짓기 이름을 알려주기 무렵만은 제3자에 게서 이름을 짓기도 한다. 그런데 이름을 비롯한 작위를 들으면 왜 하더라도 내 이름을 김일성이라고 지었는데 아버지한테 한 번 물어볼 때도 없지 않던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볼 때 친구들한테 물어보곤 했다.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됐는지 물어보는 건 내 나이 5살 때였다.

▶**5살 때 신원에서 김일성 이름** = 요즘 결혼을 꼭 쓰면 나의 한쪽의 잡자나 동생들보다 이따금 내 이름(김일성)이 신자지 아닌지 물어볼 때는 내 나이 5살 때였다.

▶**막 배우기를 시작하고 부모** = 내 이름을 익히기 때였는데 하루는 무슨 일로만 하는 신문

지다. ‘남양이처럼 정(正) 사회를 구현하는 태(台)이 피라고 김일성은 그의 첫 이름을 ‘정(正) (金正)’로 지었지만 6.25 전쟁 발발에 준비하면서 나머지 이름에 재(在)를 더하고 해서 그의 둘째 이름은 정일(正一)로 지었는데 사(四)이었고 지(治)는 있는 것이다. 나는 일본 총학생회 시절 3월 1일 때 태어난다. 그 날은 명치절이라고 해서 일본서 가장 큰 명절 날이었다. 그래서 일(日)자를 생략하고 ‘정(正) (金正)’으로 지었는데 부모들은 ‘정(正) (金正)’을 좋아해서 ‘정(正) (金正)’이라고 지었는데 그 비슷한 이름을 짓고도 했었다. 그러나 한국학에 문제가 있었던 아버지는 결코 원하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무당에 가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짓고 보니 ‘김일성’으로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1947년 대구·마산 폭동 때 학생들이 좌에 합세하려 하자** = 1947년 대구·마산 폭동 때 학생들이 좌에 합세하려 하자 ‘우리 반엔 김일성 장군이 있으니 염려할 것 없다’고 고함을 지르니, 폭소와 함께 진정됐다”

▶**1947년 대구·마산 폭동 때 학생들이 좌에 합세하려 하자** = 담임선생 “우리 반엔 김일성 장군이 있으니 염려할 것 없다”고 고함

▶**27세의 청년으로서** = 그 뜻이 바는 ‘지과 신원출판사...’ 는 기사가 실려 있었으나, 그 후 김일성은 일제치하의 조선인민들에게 친절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보통에는 암흑상 상위에 있는 국(國)도지, 웬해 이(이)에서 ‘영(影)의 상징’로 지칭되어 있고, 보통보 사건은 김일성을 영웅으로 신화화하는 역사적 대 사건으로 광양을 받고 있다.

▶**어린 그의 항일정면으로** = 해서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을 권위화하고 많은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주의 목욕은 흰 한복을 입고 고깃국을 먹는다” 라고 자랑하면서 인민을 굶주리게 하는 김일성을, 단군 이래 처음 있는 한국 국민에게 배척하는 시대를 가져다 준 김일성으로 평가되기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우연의 일로** = 나는 만주의 김일성이 총학생회를 다니고 있다. 그 토박이 조선 사람을 만나면 내 이름과 신원(新源) 김일성이 들어 있는 카드도 들었던 것이다. 그러니 김일성이 총학생회 다녔다는 것

▶**그가 밝힌 눈동** = 어느 날 ‘공군사관학교’에 다니던 시절 친구들이 한 말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일했어”

▶**어린 김일성이 미국과 함께** = “이름 때문에 많은 곤욕이” = 어린 시절 친구들 사이에 “이름 때문에 많은 곤욕이”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름 때문에 많은 곤욕이”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름 때문에 많은 곤욕이”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어느날의 중국 김일(肅林)시** = 언젠가 중국 김일(肅林)시에서 두번재로 들었다.

▶**27세의 청년으로서** = 그 뜻이 바는 ‘지과 신원출판사...’ 는 기사가 실려 있었으나, 그 후 김일성은 일제치하의 조선인민들에게 친절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보통에는 암흑상 상위에 있는** = 국(國)도지, 웬해 이(이)에서 ‘영(影)의 상징’로 지칭되어 있고, 보통보 사건은 김일성을 영웅으로 신화화하는 역사적 대 사건으로 광양을 받고 있다.

▶**어린 그의 항일정면으로** = 해서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을 권위화하고 많은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우연의 일로** = 나는 만주의 김일성이 총학생회를 다니고 있다. 그 토박이 조선 사람을 만나면 내 이름과 신원(新源) 김일성이 들어 있는 카드도 들었던 것이다. 그러니 김일성이 총학생회 다녔다는 것

▶**그가 밝힌 눈동** = 어느 날 ‘공군사관학교’에 다니던 시절 친구들이 한 말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일했어”

▶**어린 김일성이 미국과 함께** = “이름 때문에 많은 곤욕이” = 어린 시절 친구들 사이에 “이름 때문에 많은 곤욕이”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름 때문에 많은 곤욕이”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어느날의 중국 김일(肅林)시** = 언젠가 중국 김일(肅林)시에서 두번재로 들었다.



동문 시 감상

“눈이 쌓이니...”

정희자(미대 50) CH
시사랑가-문인

눈이 내리면 강아지도 아이들도 어린다지도 웃고 뛰었었다.

어제도 오늘도 그 내일은 맑고 푸른 눈이 쌓이던 모두 무너져 버려 곱작 못하게

꿈을 꾸고 싶어 지름은 험악히 땀과 찬데

그가 밝힌 눈동

어느 날 ‘공군사관학교’에

다니던 시절 친구들이 한 말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일했어”

어린 김일성이 미국과 함께

“이름 때문에 많은 곤욕이”

어린 시절 친구들 사이에

“이름 때문에 많은 곤욕이”

어느날의 중국 김일(肅林)시

언젠가 중국 김일(肅林)시

에서 두번재로 들었다.

큰 눈이 되어 길을 때우니 그 길은 소수(小)인 = ‘눈’이 내리면 눈사람이 되고 같은 눈사람이 세상이 무너져 버려 곱작 못하게

눈이 내리면 강아지도 아이들도 어린다지도 웃고 뛰었었다.

어제도 오늘도 그 내일은 맑고 푸른 눈이 쌓이던 모두 무너져 버려 곱작 못하게

꿈을 꾸고 싶어 지름은 험악히 땀과 찬데

그가 밝힌 눈동

어느 날 ‘공군사관학교’에 다니던 시절 친구들이 한 말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일했어”

어린 김일성이 미국과 함께

“이름 때문에 많은 곤욕이”

어린 시절 친구들 사이에

“이름 때문에 많은 곤욕이”

어느날의 중국 김일(肅林)시

언젠가 중국 김일(肅林)시

에서 두번재로 들었다.

이름이 단란한 자기 표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40포 2014년 4월

서울대 미주 동향기보

>2014년 계획

Table with 4 columns: Event Name, Date, Location, and Details. Includes events like N & NJ, Spring Meeting, and various seminars.

Table with 4 columns: Event Name, Date, Location, and Details. Includes events like Spring Meeting, N & NJ, and various seminars.

2013-20146

관악학원

Table listing various programs and courses offered by Gwanak Academy, including English, Korean, and specialized courses.

미주 동창회 대도시 위원 후援

Table listing support for local chapters, including names of members and their respective cities.

Brain Network Symposium 후원 (Sponsorship) section listing variou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supporting the event.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703) 462-9083

| CA 남가주 | 운송/유통/물류/엔지니어링 | 서비스/재무/법정/보험 | 우우개발/기술 |
|---|---|---|---|
| 공인회계사 강동훈 회계사 강동훈 (봉대 50) (310) 539-0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kangdon@att.net |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감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9 9615 S. Norwalk Blvd., #9, Santa Fe Springs CA 90670 | A.P.W. 자동차 부품 서동원 (상대 60) (910) 753-3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 Tayco Engineering, INC 김재훈(상대 64) 714-552-2340 10874 Hope St. Box#5034 Cypress CA 90630 jc@tayocong.com www.tayocong.com |
|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봉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300, L.A. CA 90010 | 엔지니어링 컨설팅 Lee & Ro, Inc. 노영호(공대 61) (602)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 비영리법인 해양 크지 에너지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254-1871, 495 N.Whisman Rd. Ste.300 Mt.View CA 94043 | NY-NY 뉴욕/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 김광수(상대 64) (212) 750-1769 / 517047-062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
|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St. #280, Gardena CA 90248 | 건축/엔지니어링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5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0-627-0051 5894 Francis Ave, Dhiro Hills, CA. 91710 | 리태일러 Kenneth K. Lee CPA 이경원(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
| 김 & Kang CPAs (김경우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우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 ACCU Construction, Inc. 영동훈(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Santa Ana CA 92705 |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
|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상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 약국/약국 Gilbert Pharmacy I * 최우서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 변호사 신혜연 변호사 신혜연 (상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
| 이광원 공인회계사 이광원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144 LA, CA 90010 | 경수안 안내과 · 혈액내과 정수민(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 부동산/교외 Teamspirit Investment & Dev. 이종달(간호대 69) 714-396-0624 949-251-040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arnicelee@gmail.com jarnicelee.mystr.com | American Int'l Line, Inc. 양영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
| 강홍석 회계사무소 강홍석(상대 81) 714-530-3630 12912S roc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송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 라 카나다 한인교회 목교 현(공대 66) 819-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 건축/부동산 관계 Evergreen Realty 이재원(봉대 80) 201-944-5353 242 Broad Ave.Palaisades Park NJ 07850 |
| STANLEY Cha, CPA 차기민(공대 85) 213-739-5700, 714-525-1821 schaccap@gmail.com 3440 Wilshire Blvd. #6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 지각변형 황준오 D.D.S. 황준오(치대 73) 409-732-0463 877 W.Fremont Ave. #H3 Sunnysvale CA94087 | 리태일러/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봉대 59) (213)627-0547 650 S. Hill St. #F B LA, CA 90014 | 감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공대 93) 347-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
| Jun Chang CPA 장준(인문대 85) 819-772-2611 213-46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 Seonho Ha Prosthodontics 허선호(치대 81) 3240 Wilshire Blvd # 510 LA, CA 90010 sdsph@yahoo.com | 클리닉 San Bernado Foot Clinic INC. 이상민(농대 80) 909-882-3800/(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상대 56) 650-254-1871 495 N.Whisman Rd.# 300 Mt.View CA 94043 |
|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일형(간호대 72) 213-467-3253 3435 Wilshire Blvd. Ste 2500 LA CA 90010 im.cho@saxa-advisors.com | U 김기형(상대 75) |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76) 404-579-625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 |

PA 필라델피아

동물병원/연속 설계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복(수의대 68)
215-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Timothy Haas & Assoc.
소치록(생물과대 77)
494-342-0300
550 Towson Line Rd. Ste. 10 Blue Bell PA 19422

이종미 일석당
최종훈(공대 81)
(267) 409-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TX 텍사스

엔지니어/건축

C&C Industries Inc.
진기우(산업대 60)
713-466-1644
10350 Clay Rd., Ste.250 Houston TX 77041
kc@candcvaive.com www.candcvaive.com

MD,VA 워싱턴DC

지리

이준영 지리(지대 74)
(301) 220-2828 (301)928-9692
8021 Greenbelt Rd.SW-3, College Park MD 20740
893Ladys Drive CL,Gaithersburg MD20877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원일(농대 69)
(703) 755-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모터/기계/전기

Drivetech, Inc
엄달일(공대 69)
703-327-2787
Carrington Drive, Chantilly, Virginia 20152

재정/보험/컨설팅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진(경영대 84)
301-279-6969.
414 Runnigerford Dr. #203 Rockville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자전대 82)
703-663-8400(C) 703-785-8467(C)
1952 Gallows rd.Ste 214 Vienna, VA 22182

NE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준(치대 66)
702-384-2829 702-480-7115
52055 Durango Dr. #102 Las Vegas NV811 31

OR 오레곤

Flonixon Inc.
박희진(농대 78)
602-419-5383
RD 20850 7416 Beaverton OR.97007

동문 신간

원본 나해석 전집

나해석기념사업회 간행

품위 羅麗華(사언인)의 회상...
우리 근대사 속에서 문학계, 미술계, 여성계를 담당해 가장 높은...

삶과 생각의 궤적

나해석 저서

도교 의과대학 학생, 대한기생충학회장, 한국진단병리학회장 등
1923년 1월의 사신문에 개고했던 글을 비롯해 일간지, 의과잡지, 의대동문잡지...

테이모 보는 韓國史

나해석 편저

포스코 부사장, 삼성에서 경영 교수 등을 지낸 나해석(행성도 63)동문인 편저 '테이모 보는 한국사'...

한국 근현대사의 정점 연구

나해석 편저

문화일보 출판국·원경출판사
중국 근현대사 연구자로서 어떻게 볼 것인가부터 한국 문단, 주체성 진취학의 사투리, 托物寓言...

다시 피지는 햇살 周易

나해석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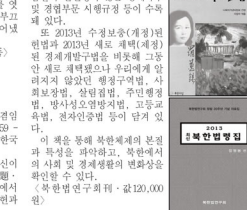
KBS 프로토시프, 신의위험을 지낸 周易(공대 62) 동문인 周易의 총서적 여정...
이 책은 周易의 생애와 사상과 원리, 오늘날의 동양학 '현상'이 만들어온 과정, 그리고 해석이 필요...

최신 13집 북한학정립

나해석 편저

국대원 명대 鄭東華(행정 63-72)명대교수 박찬의 최신 명명용어
집행 '북한학정립'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1990년대 이후 북한학의 시 계통 또는 계통원 명명학과...

나해석 저서



시암문화에 나타난 죽음

나해석 저서

동국대 영양영문학부 黃恩熙(영문학)교수가 플라톤의 '파이돈' 부기 크로키스의 '배의 죽음' 무도...

진단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나해석 저서

추진교대 조正坤(대원70중)명대교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와 예방을 소개한 책을 출간했다.
현대인 중 수백만 명의 아동과 성인, 노인, 그리고 여성들이 살고 있는 PTSD와 심리적 외상 문제를 과학적·전문적 차원에서 학문적인 최신 연구자료를 광범위 임상적 사후가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의 진단, 치료와 예방문제를 학술적으로 소개한다.

한국의 근현대사

나해석 저서

정세근 행정학과 黃善鎔(정경 72) 동문인 편저 '한국의 근현대사'가...

원본 나해석 전집

나해석 기념사업회 간행



우리 삶의 세상 읽기

나해석 저서

이 책은 바블라르 박사(가오스트리)의 아파라의 가장 큰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경제 및 경제 이론을 간결하게 소개한 것이다.
미제스는 상이한 가치와 선호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경제 체계 행동을 설명한다.

우리 삶의 세상 읽기

나해석 저서

필론가, 소크라, 출판에디터로 활동 중인 나해석(1978-82)동문인 지난 20년만에 펴낸 문학작품집이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 1부 '우리 삶의 세상 읽기', 2부 '작가와 사회', 3부 '작가와 사회'에 대한 비판과 사회학에 관한 글과 시를 모아 엮었다.

우리 삶의 세상 읽기

나해석 저서

이 책은 바블라르 박사(가오스트리)의 아파라의 가장 큰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경제 및 경제 이론을 간결하게 소개한 것이다.
미제스는 상이한 가치와 선호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경제 체계 행동을 설명한다.

우리 삶의 세상 읽기

나해석 저서



Copyright © 2014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has been edited with Infix PDF Editor - free for non-commercial use.
To remove this notice, visit: www.icent.com/unlock.htm

원고 청탁

▶시·수필·칼럼·에세이·특약 기사 등 - 동향인보는 모든 동문들의 글을 게재하고 있으나, 주제의 글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주제와 내용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만 지라도 정서사회적, 어떤 점으로 인터넷 내용이 글감을 풍부히 할 수제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 주제와 내용이, 또한 중요시되므로 너무 지루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량은 꼭 정이 아닌 경우 A-4(Letter)용지 3-4매 이내로 알은사건과 인터넷을 첨부해주시십시오.
▶My Journey to America - 동문들의 지난 운과 꿈 그리고 현재의 'My Journey to America' 시리즈에서 최근 최유연(공대 57) 동문님의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문들에게는 이 시리즈에 글을 써서 앞으로 자신의 여정을 주제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 이를 널리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편집주간 >>

‘편집후기’

○... 또 동문에서 “결혼 커리어에 대한 발을 두고 있는데 자신과 비슷한 환경과 조건이 아들을 잘 돌보아 줄 것이라든가 차도 없으면 못 낳을 수 있게 만들어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진화파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운과녀를 두고 있는 동문들이 서로 맞아 놓거나 혼사를 원할 경우에 대비해 동종종파가 이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서 장구 할 것들을 만들어 두는 것

도 좋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권에도 이런 제의가 종종 있었습니다. 더구나 동향회보에 게재되면 또 동문의 가족사건 중 자신의 학력과 직업이 아주 마음에 안 나서 그 자신의 혼인 여부를 잘 봐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솔직한) 자녀를 낳는 부모는 마땅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문들 중 다수가 원한다면 동향회에 시도 제극 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머췌는 기존의 ‘서울대 미주 동향회’ 외에도 ‘서울대학교

미주제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도 모교 발전을 위한 행사와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미주 동향회와는 별개 단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동문들이 “모교 발전을 위해 가다한 기부했는데 왜 동향회에게 게재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련된사람들에 대한 열조조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주 동향회에서는 미주제단을 대화할 제의하였을 예정입니다. 알려드립니다. <<< 편집주간 >>

미주 동향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향회 제12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광수(문)·김수상(의)·이병준(상)·오인석(법)·이흥락(의)·오홍조(의)·이영택(공)·이건구(회)·송승영(문)

명예회장: 김은중(상)

제12대 회장: 오인환(문)

- 자기 회장: 손재욱(가정) 관악후원회 부회장: 김민승(가정) Brain Network담당 부회장: 이재진(문) 미 주류사회 담당 부회장: 공승욱(2) 관악세대 담당 부회장: 이영택(시화)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권기현(시화)

상임고문: 박광수(문)·이영택(공)

집행부 임원

- 사무총장: 정영희(공) 재무국장: 한정민(의) 조직국장: 박익지(음) 재무국장: 유홍영(자연) 광고국장: 함은선(음) 사업국장: 김정숙(농) 상임국장: 이우진(농) 기금모금위원장: 권철수(의) IT개발위원장: 손재욱(가정)

홍보 임원

- 발행인: 오인환(문) 주필: 박 순(법) 편집위원장: 장경태(사) 편집주간: 이기준 편집위원: 권경의(공)·서윤석(의)·이윤주(상)·이혜덕(상)·정영희(공)·김정숙(농)·김성택(의)·함은선(음)·이나연(공)·각 지역 동향회 편집기사

논설위원장: 이향열(법)

논설위원: 김양현(의)·고병택(의)·조희준(의)·이재진(의)·최태원(공)·정홍택(상)·윤상래(수)·김창수(의)·지영민(의)·이석구(연)·김용현(경)·유재홍(문)·장영택(의)·허용환(사)·민경준(의)·이영택(경)

회칙위원회

위원장: 한재윤(의) 위원은: 서정민(공)·김미연(법)·윤상래(수)·김지영(사)·신승남(농)·함은선(음)

감사: 박병익(농)·주기복(수)

*사진·취재·기사작성·편집·디자인은 이기준 편집주간 snuusaajk@gmail.com, snuusaat2@gmail.com *인쇄: Silver Communications 102-A Executive Dr., Sterling, VA 20186

각 지역 동향회 회장단

| | | |
|---------|--|---------------|
| 남가주 | 회장: 이서희(법대 70) 213-840-2064 sleestap@gmail.com 자기회장: 박태욱(간호대 69) 818-952-2871 | 회계년도: Feb-Feb |
| 북가주 | 회장: 이상우(문리 72) 408-891-0200 president@fnua-nc.org 자기회장: 박희래(간호 73) 831-818-2959 acuheerelife@hotmail.com | Jan-Dec |
| 뉴욕 | 회장: 박상원(음대 69) 917-324-2989 sangparkny@gmail.com 자기회장: | Jan-Dec |
| 뉴잉글랜드 | 회장: 장수인(음대 76) 978-821-9434 sooinhne@comcast.net 자기회장: 이영애(인문 73) 978-479-0046 kyungaelife@gmail.com | |
| 달라스 | 회장: 최연(공대 70) 817-919-3057 younchoy@cbglobal.net 자기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o1.com | |
| 텍사스 | 회장: 김영일(법대 64) 719-321-9989 youngisaackin@haramail.net 자기회장: | |
| 미네소타 | 회장: 변우진(인문대 81) 952-962-0040 wdwlaw@yahoo.com 주회회장: 조혜식(공대 84) 952-807-6559 | |
| 샌디에고 | 회장: 최홍수(자연대 87) 858-259-5273 heungsoo.choi@knobbe.com 자기회장: | |
| 시카고 | 회장: 김호범(상대 69) 847-657-8919 hkim@roqong.com 부회장: 김영주(공대 73) kiyonjo@gmail.com | Jan-Dec |
| 여리조니 | 회장: 오윤환(문리대 56) 520-271-2601 younwhan-oh@yahoo.com 자기회장: | |
| 앨리스카 | 회장: 윤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jyon@hotmail.com 자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 |
| 오레곤 | 회장: 이석진(공대 89) 503-317-5625 seokjin.lee@gmail.com 자기회장: | |
| 오하이오 | 회장: 송원필(의대 58) 614-378-2918 wonsong3140@aol.com 자기회장: | |
| 워싱턴 DC | 회장: 딸은선(음대 77) 703-969-3006 samilar12010@gmail.com 자기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nt@gmail.com | Jul-Jun |
| 워싱턴주 | 회장: 이원섭(사대 77) 206-954-1871 C wntee@qbnintl.com 수석총무: 임현민(공대 84) 425-444-3899 heomin.lim@icrsocoff.com | |
| 유타 | 회장: 정경원(자연대 83) 801-897-4060 Kyungwan@fthrادر.com 부회장: | |
| 조지아 | 회장: 김동현(상대 68) 215-828-9011 dhkiskim@hotmail.com 부회장: 강창석(의대 73) 314-363-8396 kangsf@gmail.com | |
| 중부 텍사스 |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schris@gmail.com 부회장: 이주희(공대 89) 512-663-0931 juhee_williams@gmail.com | |
| 필라델피아 | 회장: 한중희(공대 80) 484-354-3547 jhan9@its.tjnj.com 부회장: 유기병(문리 64) 215-822-5248 | Jan-Dec |
| 플로리다 | 회장: 부회장: | |
| 캐롤라이나 | 회장: 정선호(자연대 78) 919-928-9696 sinho.jung@duke.edu 자기회장: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leep109@rr.com | |
| 테네시 | 회장: 박재현(자연대 81) 865-896-9066 jae.park99@gmail.com 부회장: 박순호(농대 85) 865-974-8216 865-671-3802 sbak2@utk.edu | Jan-Dec |
| 하와이 | 회장: 김윤수(농대 75) 808-394-2369 ykim@hawaii.edu 자기회장: 신성일(해양 77) | |
| 하를랜드 | 회장: 이상진(공대 70) 918-687-1155 senjuns@hawaii.edu 자기회장: 박혜순(공대 68) 913-491-1946 hyesunglee@yahoo.com | |
| 휴스턴 | 회장: 이홍성(공대 72) 281-877-6584 hlee@eagle.org 부회장: 최인성(공대 75) incho@ttn.com | Jan-Dec |
| 캐나다 밴쿠버 | 회장: 이명균(농대 69) 778-378-7339 nymcklee@gmail.com 부회장: 김홍욱(공대 70) 604-624-0101 | |
| 캐나다 앨버타 | 회장: 조용희(자연 82) 403-622-6625 dalhusiedu@hotmail.com 부회장: | |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대표 이승훈(상대 74)

www.jayone.com

www.toptravelusa.com

1991년 탄생한 합여행사가 22세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합여행사는 사료여행사와 하나가 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합여행사: 우리사람들의 사색으로 뿔뿔한 최고의 여행사로서 자질을 갖춘 합여행사. 미국 합여행사에서는 1991년에서 2013년 까지 22년 여의 세월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행사로 성장하여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행사입니다.

합여행사 TOP TRAVEL

합여행사는 우리사람들의 사색으로 뿔뿔한 최고의 여행사로서 자질을 갖춘 합여행사. 미국 합여행사에서는 1991년에서 2013년 까지 22년 여의 세월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행사로 성장하여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행사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점) 7021 Little River Rd. #108, Annapolis, VA 22029
미국 (워싱턴점) 1700 S. Washington Blvd., Centreville, VA 20106
미국 (뉴욕점) 1700 S. Washington Blvd., Centreville, VA 20106
미국 (로스앤젤레스점) 1700 S. Washington Blvd., Centreville, VA 20106
미국 (샌디에고점) 1700 S. Washington Blvd., Centreville, VA 20106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여이사 김혜영, 조인, 문리애 www.doo.co.kr

좋은사랑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듀오

- 소비자 인정을 받은 최우수 브랜드: 규모와 품질, 서비스까지 고가치 인정받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유망업계의 핵심 프랜차이즈: 고객까지도 체계적인 경영 프로그래밍으로 이상성을 찾아드립니다.
- 배양 커리어에서: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리어까지 소망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본국: 최첨단 시설, 최첨단 장비, 최첨단 인력, 2인 1역에 맞는 최첨단 운영 및 맞춘 서비스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9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9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 NY 201-242-0505

재미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하는 한스여행사!

한스여행사 직접 모시고 가는 모든 단체 여행 상품들은 차별화된 고급 여행 상품들로 여행분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선사해 드립니다.

2014년 한스관광이 직접 모시고가는 여행

- 2월 10일(월) - 2월 16일(일) 2월 10일(월) - 2월 16일(일) **SOLD OUT**
- 2월 17일(월) - 2월 23일(일) HOLY LAND / EGYPT **SOLD OUT**
- 3월 1일(월) - 3월 7일(일) JORDAN 성지순례 11박12일
- 3월 15일(월) - 3월 21일(일) HOLY LAND / EGYPT, ISRAEL, JORDAN 성지순례 12박13일
- 3월 29일(월) - 4월 5일(일) THE BEST GREEK ISLANDS 7박9일
- 4월 12일(월) - 4월 18일(일) PERU/JAMAICA 양귀비 산비 10박11일
- 4월 26일(월) - 5월 2일(일) PERU/JAMAICA 양귀비 산비 + 브라질 이구아수, 리오데자네이루
- 5월 10일(월) - 5월 16일(일) GREECE / TURKEY 12박13일
- 5월 14일(월) - 5월 21일(일) 캐나다 여행, 고급 관광상품 (샌토, 톨슨도 및 배낭여행) 7박8일
- 5월 22일(월) - 5월 29일(일) 영국 7박8일 (POST TOUR)
- 5월 31일(월) - 6월 7일(일) Amadras 동양산악스afari 10일
- 6월 14일(월) - 6월 21일(일) 크로아티아+벨라지아 13박 14일
- 6월 21일(월) - 6월 28일(일) 사립 10박11일 **SOLD OUT**
- 7월 5일(월) - 7월 12일(일) 7월 5일(월) - 7월 12일(일) 7월 5일(월) - 7월 12일(일) 7월 5일(월) - 7월 12일(일)
- 7월 19일(월) - 7월 26일(일) AMAZING Korea Trip
- 7월 26일(월) - 8월 2일(일) 7월 26일(월) - 8월 2일(일)
- 8월 9일(월) - 8월 16일(일) 8월 9일(월) - 8월 16일(일)
- 8월 23일(월) - 8월 30일(일) MONTERLAND AREA TOUR 17박18일
- 9월 6일(월) - 9월 13일(일) 9월 6일(월) - 9월 13일(일)
- 9월 13일(월) - 9월 20일(일) 9월 13일(월) - 9월 20일(일)
- 9월 27일(월) - 10월 4일(일) CHINA & THE ESSENCE OF SOUTH EAST ASIA 15박16일
- 10월 13일(월) - 10월 20일(일) 10월 13일(월) - 10월 20일(일)
- 10월 27일(월) - 11월 3일(일) 10월 27일(월) - 11월 3일(일)
- 11월 10일(월) - 11월 17일(일) 11월 10일(월) - 11월 17일(일)
- 11월 24일(월) - 12월 1일(일) 11월 24일(월) - 12월 1일(일)

HANS WORLD TRAVEL
Toll Free: 800-963-4267 / T. 703-658-1717, 301-770-1717, 410-480-9898
Fax: 703-658-3110,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rpk., Suite 102, Annapolis, VA 22003

재미 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 한 여행자들

1월 2007년 1차의 크루즈 여행 2월 2008년 1차의 이집트 여행 3월 2009년 1차의 이집트 여행 4월 2010년 1차의 이집트 여행 5월 2011년 1차의 이집트 여행 6월 2012년 1차의 이집트 여행 7월 2013년 1차의 이집트 여행

JW 토닉 샴푸





HAPPY SEEDS
INCORPORATED
877) 427-7981
장경태(사대 75)

novitausa
Something better for you



세정력의 차이!
욕실품격의 완성
노비타 비데



Masters the art of piano building since 1849.

PROUDLY PRESENT A MASTERPIECE FROM GERMANY.

유럽인의 긍지! 160년 전통을 자랑하는 자일러 피아노만의 디자인과 맑고 투명한 음색의 세계적인 명성을 직접 느껴 보십시오.



 서울 G20 정상회의 2010
북동공연 연주 피아노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공식 지정 피아노

ED186

- German Renner Action
- German Abel Hammer
- German Roslau String

samick

SAMICK MUSICAL INSTRUMENTS CO., LTD. 1-4, Daejang ri, Solmyeon, Eumseong-gun, Chungbuk, KOREA TEL: 82-2-3498-3215 www.samick.co.kr